소 년 단

1964. 12

싸워 이기자

(2)남녘 땅에 나 어린 내 동무들아
날새들도 집이 있어 자려 가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밖에서 자니
집마저 미국놈이 뺐어 갔다지
(후렴)

(3)내 동무야 일어나 싸워 이기자
원수님의 품에 안겨 같이 꽃피자
용감한 동무들의 뒤를 따라서
원쑤를 몰아내자 싸워 이기자
(후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12월 중 주요 일지

1 일—조국 광복회 기관지 《3.1월간》 창간. (1936년)
4 일—《갑신 정변》 (1884년)
13일—불굴의 혁명 투사이며 김 일성원수님의 가장 친근한 [illegible] 사람인 안 길 동지 서거 (1947년)
16일—재일 동포들의 첫 귀국선 청진항에 도착. (1959)
17일—조선 인민 혁명군 륙과송—쟈신즈 전투. (1939)
—강의하고 충직한 공산주의자 오 중흡 동지 서거. (1[illegible])
20일—15 세기 조선의 걸출한 작가이며 사상가인 매월당 김[illegible] 생. (1435년)
21일—이. 웨. 쓰딸린 탄생. (1879년)
22일—과학적 조선어 연구의 선구자 주 시경 탄생. (187[illegible]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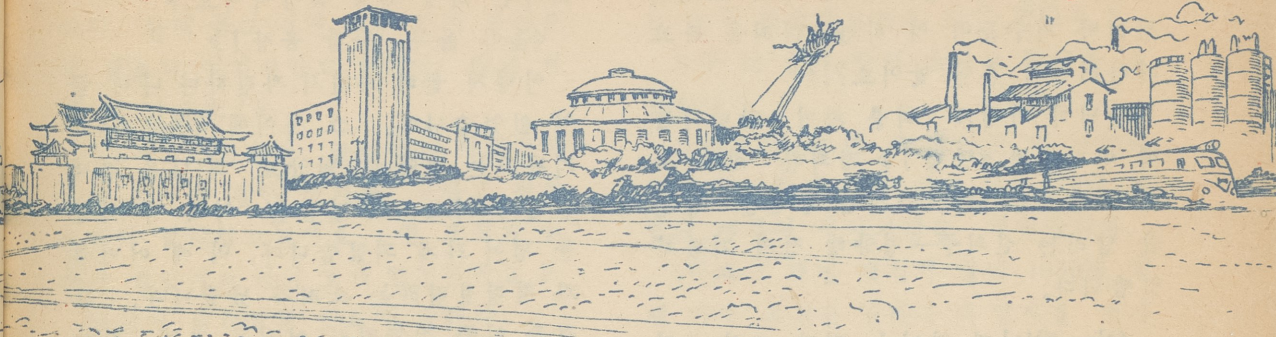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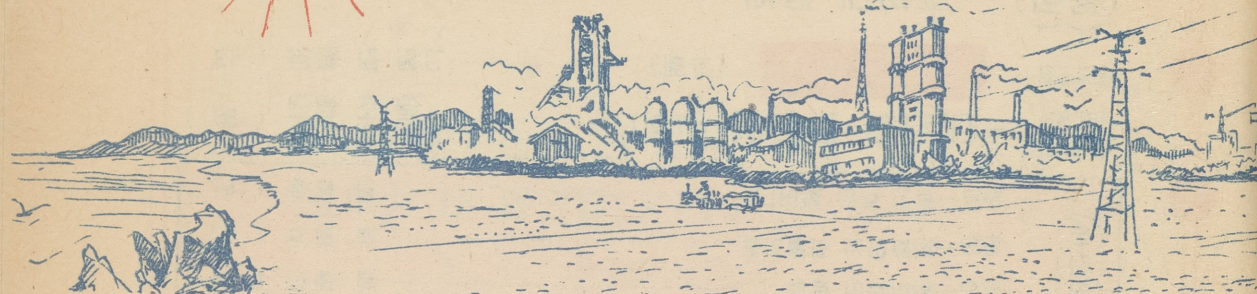
소년단

12
1964

차 례

표지 1면—눈 싸움 촬영 조 종 문

해'님과 달님이 주고 받은 이야기

차 용 구

섣달 그믐날 아침 8시쯤에 있은 일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정확한 해'님은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떠올라 밝은 빛을 함뿍 뿌리면서 밤 사이에 무엇이 변했는가를 두루 살펴 봤습니다.

어제 저녁 자본주의 나라의 어느 번화한 거리를 누더기를 입고 헤매던 늙은 거지가 굶어 죽지나 않았는지… 찬바람이 울부짖는 거리에서 손을 홀홀 불며 담'벽 밑에 웅크리고 있던 남조선의 그 고아가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피던 해'님은 무엇에 놀랐는지 소리를 쳤습니다.

《자 저것 봐라! 분명 어제는 없던 집인데… 분명 어제는 없던 굴뚝인데… 분명 어제는 못 본 새 땅이고 물'길인데…》

해'님이 눈을 비비면서 바라 보는 것은 아세아의 동쪽 파란 바다에 삐죽이 나와 있는 아름다운 조선 반도의 북쪽 땅이였습니다.

일 년 삼백 예순 다섯 날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놀라기만 해 오는 해'님입니다. 《아, 참 조선은 얼마나,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나라인가!》

해'님이 이렇게 혼자'소리를 하는데 이 나라의 밤하늘을 비치던 달님이 말을 건네 왔습니다.

《아 해'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 달님이구만. 글쎄 내 나이 수십억 년이 되도록 살아도 조선 나라 사람들처럼 날에 날마다 기적을 낳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니까.》

《옳은 말이예요. 금년 한 해에만 해도 밤낮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놓았소?》

《하긴 내야 낮에만 보지만 달님은 밤'일을 잘 보았을 테지.》

《그럼요. 낮에 일어 난 기적은 밤에 마련되고 밤에 일어 난 기적들은 낮에 마련되니까요. 정말 쉼 없이 놀라운 일들을 해 내지요.》

《그 말이 옳소. 그런데 달님! 올해엔 뭐니 뭐니 해도 이 나라에서 5.1절을 기념하면서 저 산'골에 있는 자강도 강계 청년 발전소 조업식을 하는 것을 본 게 제일 인상에 깊은데 안 그렇소?》

《글쎄, 뭐 어느 것이 첫째고 둘째라고 할 수는 없지요만 아닌 게 아니라 천지

개벽이였지요. 옛날에야 그 자강도라는 데야 귀틀'집만 널려 있던 곳이 아니우. 그런데 지금은 기계 공장이 들어 서고 발전소가 일어 서고…》

그러자 해'님은 력사의 기록장을 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만 6,000 키로 크바의 전기를 내는 이 웅장한 발전소를 불과 몇년 동안에 해 냈으니 말할 게 있소?》

그러자 달님은 제 치부책을 꺼냈습니다.

《해'님도 아시겠지만 1 년에 40만 키로 크바의 전기를 일군다는 평양 화력 발전소 공사도 금년에 벌써 10만 키로 크바는 일굴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되였다지 않아요.》

《그렇지, 그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남조선에서 나는 전기를 전체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화력 발전소 말이지요?》

《그래요. 이제 이 발전소가 되면 평양 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좋아지겠소.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로 방을 덥히고 더운 물을 쓰구…》

《그래 그래, 하긴 내가 언제 그 어느 아빠트 창'가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이야길 들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달님! 올해 그 조선의 국경 도시 신의주에 새로 선 비단 궁전 소식을 들었소?》

《지난 9월에 조업을 시작한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이야기군요.》

《그것 말일세. 1 년에 1억 2,000만 메터의 옷감을 짤 수 있는 2만 톤의 스프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말이요.》

《아! 그게 80 메터 굴뚝을 단 45 일에 쌓고, 하루에 1만 2천%씩의 일을 해내서 <신의주 속도>를 창조했다는군요.》

그러자 해'님은 밤'길만 걷는 달님이 어느새 자기보다 못지 않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시새움이 갔습니다.

《그럼 달님은 조선에서 한 해에 비단이나 양복천 같은 천을 얼마나 짜는지 아나?》

해'님이 이렇게 따지듯이 묻자 달님은 얼'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해'님은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3억 메터나 된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평양에서 달님한테 비단

천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다오.》

《뭐 비단 다리를?! 그럼 이제 조선의 천리마 기수들이 이 비단 다리를 타고 나한테까지 온단 말이요?!》

달님이 이렇게 혀를 차며 감탄하는데 어디선지 《빵빵!》 경쾌한 신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무연한 벌판을 달리는 신의주—평양행 전기 기관차였습니다.

《야, 해'님과 달님! 정말 조선 사람들은 멀지 않아 과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거예요. 그 때면 달님네 나라에는 물론 더 먼 별나라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껄껄 웃고 난 《붉은기》호는 자기도 금년에 새로 세상 밖에 태여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달리는 이 500 리 전기 철'길이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에 건설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강선 제강소에 인발강관(강철로 뽑아 만드는 관) 직장이 선 이야기, 황해 제철소에서 붕괴 압연 직장이 새로 선 이야기 등 한 해 동안 조선의 로동자 아저씨들이 이룩한 가지가지 성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서산에 넘어 가야 할 달님이 지기 전에 한 마디 더 해야겠다는듯이 나서며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걸요. 평양에서 김 일성 종합 대학 1 호 교사가 서고, 1,800 명이 앉아 구경할 수 있는 교예 극장이 선 이야긴 왜 안 하나?》 하고 빙정대듯 말했습니다.

《허, 그러다 보니 내가 해 볼 말은 없게 되는가 보군. 금년에 저 북쪽 함경 북도 회령땅에도 무슨 큰 공장이 일어 서던데…》

《거야 1 년에 10만 톤의 사탕무를 처리하는 회령 제탕 공장이지요.》

《옳아 옳아, 사탕 공장!》

이렇게 돌려 가면서 자랑하다 나니 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붉은기》호 기관차는 평양에 닿았고 해'님은 벌써 중천에 떠오르고 달님은 이제 막 서산을 넘어 가게 되였습니다. 이 때 어디선가 철렁철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연풍 저수지랑 어지돈 관개, 기양 관개의 물'줄기들이였습니다.

《글쎄 자랑은 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 놓았거든.》

관개 수로의 물님들과 저수지의 물님들이 주알주알 이렇게 말하자 해'님이 물었습니다

《애들아, 우리는 지금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 같으면 100 년도 더 걸려야 해 놓을 일을 조선에서는 불과 10 년 안팎에 해 놓는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이상 더 큰 자랑이 또 있단 말이냐?》

《아니 해'님이 실수할 때도 있군요. 아, 세상에서 아직은 누구도 그렇게 명백하게 말할 수 없었던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테제가 나온 걸 모르슈!》

《옳지, 우리가 농촌 이야기를 빼 놓았댔군…》

해'님도, 달님도 다 같이 머릴 긁었습니다. 정말 크게 치부해 놓고서도 미리 말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이 나라만이 유독 농사가 잘 되는 건 모두 조선 로동당의 정책이 옳고 그를 받들고 나선 농민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해'님과 달님도 알고 있어서 흔히 자랑을 해 오던 일이였지요.

《아무튼 올해도 봄에 벌써 6만 정보의 논을 더 풀구 또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 황해 북도 신계 지구 관개 공사를 해 냈으니 여기서만도 얼마나 많은 벼가 더 났겠소!》

《그래요. 더우기 금년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전체 농촌이 들끓었으니까요. 참 조선의 농촌은 금년에도 몰라 보게 발전했지요.》

달님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자

해'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올해에도 살림이 얼마나 좋아졌소. 경공업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쓰고 사는 물건이 날마다 더 많이 쏟아져 나와 상점에는 없는 물건이 없게 됐으니까. 글쎄 달님도 봤겠지만 이 나라 아이들 치고 그 누가 비닐 가방에 비닐 구두 안 신은 애가 있나…》

이러는데 평양의 하늘 높이 솟아서 해'님과 달님의 말을 엿듣던 학생 소년 궁전이 한 마디 끼웠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 나도 한 마디 합시다. 금년에는 이 나라 소년들에게도 보람찬 해였답니다. 민청 제 5 차 대회가 있었고 전국 모범 소년단 대회가 며칠씩 진행됐지요. 또 금년에 새로 된 모범 소년단만 해도 10여 개고 수 많은 모범 분단, 2중 모범 분단이 나왔지요. 그리고 또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 기념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소년 단원만 해도 130 명이나 된답니다.》 그러자 해'님이 이젠 내 차례란듯이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조선을 우러러 보는 것이지. 올해 평양에서 열린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했던 외국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운 것을 보고 조선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범이라고 한결같이 칭찬하고 모두 배워야겠다고 했단 말일세.》

모두 해'님의 말이 옳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다 더 좋아질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10대 과업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7 개년 계획이 끝날 1966년 말에 가면 조선은 얼마나 더 달라질 건가.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때까지 할 공업, 농업 부문의 10대 과업을 내세우고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 밑에서 허덕이는 남녘 땅 형제들을 구원하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자는 거지요.》 해'님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때 달님은 언뜻 자기가 이제는 서쪽 나라를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유, 이야기'바람에 갈'길을 다 잊었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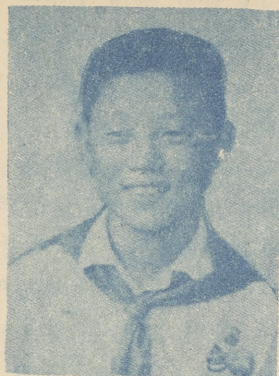
자 그럼 해'님! 이제 헤여지면 1 년 후에 만나겠지요…》

《아니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자 달님이 생글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래일은 1965년이 아니예요!》

《허허허, 그렇지, 그러니 1 년 이후지…》 해'님도 즐거운듯이 너털웃음을 웃고 나서 달님과 인사했습니다.

《자, 보다 더 좋아질 1965년에 또 만납시다!》

착하고 부지런한 단 위원

—함흥시 수도 중학교 단 위원
리 치성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김 준규

리 치성 동무네가 인민반 3 학년이 된 첫날이였습니다. 새로운 교실에 들어 간 아이들은 선생님이 정해 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 내 책상을 봐. 얼마나 멋있니?》

《정말 멋있구나. 근데 내 책상은 왜 이 모양일가? 잉크 투성이야, 칼'자리도 있구.》

동무들은 저마다 책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치성 동무의 책상도 그리 좋은 편은 못 되였습니다. 군데군데 칼'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책상이 이러니 어쩐지 마음이 언짢아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 다른 동무들의 마음은 더할 거야.) 하고 생각한 치성 동무는 후에 다른 동무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책상을 잘 다루리라고 마음 다졌습니다.

이 때부터 치성 동무는 남달리 책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잉크 방울이나 먼지가 떨어지면 제때에 닦아 놓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먹칠도 하고 초칠도 하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치성 동무의 모범을 따라 모두 책상을 사랑하자.》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녀자 동무들은 치성 동무처럼 책상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남자 동무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단 위원장인 춘복이는 남자 동무들 때문에 늘 안타까와 했습니다. 그들은 춘복이가 녀자라고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래년엔 또 새 책상을 받겠는데 뭘 그래. 너희들 녀자애들이나 잘 닦으렴.》

하고 빈정대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단 위원인 치성 동무는 춘복이를 잘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면 자기가 무슨 일에서나 동무들의 모범이 되여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치성 동무는 집에서 걸레 두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이 걸레를 가지고 다니며 자기 책상 뿐만 아니라 동무들의 책상도 부지런히 닦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교의 모든 물건을 제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책상, 걸상, 흑판, 유리창… 그 어데에나 하루에도 몇 번씩 치성 동무의 손이 미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하나, 둘 착하고 부지런한 치성 동무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치성이가 일찌기 학교에 와 보니 분단에서 하기로 의논한 일에는 자주 빠지군 하던 형배와 광빈이가 벌써 나와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치성 동무는 곧 두 동무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를 써서 단 벽보에 내였습니다.

남자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분단 위원장인 춘복이도 기뻐하며 분단 일에 더욱 열성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성 동무는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분단 동무들에게 단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하고 분단 총회에서 분공 받은 동무들을 차근차근 도와 주기도 하였습니다.

치성이는 동무들 앞에서 성을 내 본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책상 우에 잉크 방울을 떨궈 놓고 그냥 두거나 연필을 깎아 교실 바닥에 널어 놓는 동무가 있으면 그 때마다 웃음어린 얼굴로 타일러 주었습니다.

이런 치성이를 동무들은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한 단 위원이라고 하면서 좋아 했습니다.

치성 동무의 꾸준한 노력으로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책상, 걸상과 학교의 모든 물건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되였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책상을 다른 분단에 넘겨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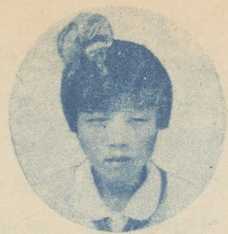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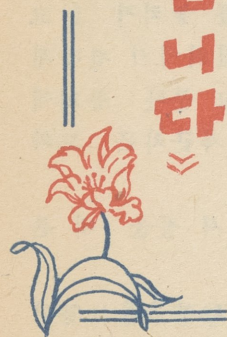
이들의 모범은 다른 분단에서도 그대로 본받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단과 분단을 위하여 꾸준히 힘써 온 착하고 부지런한 단 위원 리 치성 동무는 금년 8월 영예로운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내 동생입니다》

—평북도 구성군 청룡 중학교 단 제7 분단 위원 문영희 동무에 대한 이야기—

연 일 덕

....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즐겁게 노래하며 유치원 가요.

아이들이 신이 나게 노래 부르며 유치원으로 갑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장원 아버지, 어머니들도 귀여운 아들 딸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날 아침에도 영희는 마을의 동생들을 데리고 유치원으로 갑니다.

영희가 마을의 어린 동생들을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 인민반 4 학년에 올라 오는 때부터입니다.

아침마다 마을 동생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갈 때면 그들의 옷차림을 보살펴 보군 했습니다. 미처 세수를 하지 못하고 나온 동생들은 세수도 곱게 해 주고 머리도 빗겨 주군 했습니다.

그 전에도 영희를 보기만 하면 누나, 언니 하고 마을 아이들은 따랐는데 이제는 더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학교에 가서도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인민반 1 학년 동생들의 청소도 해 주고 저녁이면 마을에 돌아 와 그 날 배운 글을 가르쳐 주군 했습니다.

영희가 학교와 마을에서 동생들을 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단 위원회에서는 단 벽신문과 -영예의 게시판에 영희의 모범을 실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물론 학교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 영희의 모범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때부터 영희는 동생들을 그저 아침에 데려다 주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 입곱 명이나 되는 유치원 동생들의 생활을 더 열심히 도와 나섰습니다.

분단 위원회 사업도 하면서 마을 동생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년단원으로서 응당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올 때면 유치원에 들리여 마을 동생들을 데리고 돌아 오군 했습니다.

마을에 돌아 오면 동생들을 데리고 마을의 꽃밭도 가꾸고 산보도 하면서 재미 있는 옛'이야기를 들려 주군 했습니다. 때로는 《꽃봉오리》 책에 나오는 그림도 해설해 주군 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유치원으로 가는 길섶의 풀도 뽑아 주고 물'도랑에 돌'다리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물에 패인 길에 흙을 파다 메우기도 하여 어린 동생들이 다니기 좋게 하였습니다.

분단의 음악, 무용 소조를 책임 진 영희는 유치원 동생들에게도 춤과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래와 춤, 동요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써클 프로를 준비하여 농장원 아버지, 어머니들 앞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봄에만 해도 어머니를 떨어져 있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창선이, 원익이, 일현이, 정자들이 이제는 제법 마을의 《꼬마 써클원》이 되였습니다.

농장원 아버지, 어머니들은 귀여운 아들딸들이 출연하는 써클을 본 날은 일'손이 더 흥겨워져서 몇 배의 일을 한답니다.

오늘 운남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 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어린이들로 되였습니다.

영희의 모범에 감동된 분단 동무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놀이'감들을 골라 영희네 마을 유치원 동생들에게 선물로 보내 주었습니다.

영희는 분단에서 공부도 잘 하고 분단 위원으로서 조직이 준 위임 실천에서도 언제나 모범입니다.

어느 날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영희에게 《넌 어쩌면 그리도 마을 애들을 다 잘 돌봐 주니?》 하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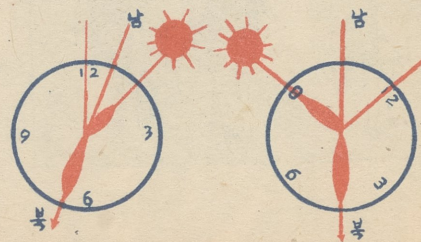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이 물음에 영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모두가 다 제 동생입니다.》 라고…

시계를 가지고 방위를 알아 내는 법

방위를 알자면 지남침이 있어야 쉽지만 지남침 없이도 방위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시계를 가지고 방위를 알아 내는 법입니다.

그러면 시계를 가지고 어떻게 방위를 알아 낼가요?

먼저 시계의 작은 바늘이 태양을 향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성냥 가치로 작은 시계 바늘과 글'자 12와의 각을 두 등분으로 나눕니다. 이 때 작은 시계 바늘과 글'자 12와의 각을 두 등분으로 나누는 선이 남북을 가리키는 선으로 됩니다.

마을과 거리에서 지켜야 할 례절

1. 아침에 일찍 마을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는 《밤새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합니다.

2. 학교에 갈 때 또는 학교에 갔다 올 때, 마당에서 놀 때 어른들을 만나면 만날 적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때마다 알맞게 인사'말을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디 다녀 오시는 길이면 《어디 가셨댔습니까?》 또는 《안녕히 다녀 오십니까?》, 《안녕히 다녀 오셨습니까?》, 《이자 오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가 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면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자기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도와 드립니다.

3. 마을이나 거리에서 어른들이 길을 묻거나 무엇을 물으면 친절하게 대 드려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모를 일이면 《제가 물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물어서 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여 드린 후에도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안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4. 어른들과 함께 길을 걷게 될 때는 언제나 어른들보다 한두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걷는 것이 례절 바른 행동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헤여질 때에도 반드시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5. 저녁에 어른들과 헤여질 때는 역시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련재 그림

행복의 피리 (5회)

그림 김 운현

㊱ 뒤에서는 추격해 오는 놈들의 고함 소리, 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 온다. 이제는 말의 코'김 부는 소리까지 들려 온다. 복동이의 다리는 얼마나 빠른지 마치 바람개비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강'기슭도 얼마 멀지 않다. 그런데 그 급한 순간 복동이는 돌'부리에 걸려 그만 아차 하는 순간 허공들이로 나가 엎으러지고 말았다.

괴물들은 《와!》 하고 복동이를 덮치려고 덤벼 들었다.

㊲ 복동이는 넘어지는 순간 그만 피리를 손에서 떨구었다. 이제는 더는 피할 새가 없게 되였다.

(이 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저 놈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복동이는 그 피리를 얼른 집어 들고 높은 벼랑에서 뛰여 내리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복동이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손에 든 피리에서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뿌려지더니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억세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쭉…쭉 뻗어 나더니 달려 드는 괴물들을 포위하지 않는가? 그 창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들은 눈 깜짝할 새에 가지를 쳐 나가더니 마침내 괴물 졸병들을 하나 남김 없이 꿰 치우고 말았다. 약이 오른 두목놈은 오르렁 대면서 몽둥이를 휘둘러 댔다.

㊳ 피리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복동이는 강'기슭까지 다달았다. 강'기슭에는 복동이와 야웅이가 타고 넘어 온 통나무가 그 대로 있었다.

㊴ 복동이는 그것을 다시 타고 넘어갈 작정으로 물 가운데 밀고·나갔다. 그 때 어디선가 풍겨 오는 그윽한 향기… 복동이가 머리를 들어 보니 하늘'가에 무지개가 비끼고 선녀들이 날고 있지 않는가?! 복동이는 반가운 나머지 피리 든 손을 높이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 순간 통나무는 아름다운 다리로 변하고 복동이는 나는듯 건너 갔다.

㊵ 가시 덤불에 걸려 부하를 다 잃어 버린 괴물 두목놈이 최후 발악으로 가시 덤불을 뛰여 넘어 뒤좇아 와 보니 복동이가 다리를 거의 건너 가고 있었다.

그 놈은 있는 힘을 다하여 말에 채찍질을 하였다. 말이 요란한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껑충 날아 올라 다리 중간쯤에 닿았을 때 아름답게 놓였던 다리는 우뢰 같은 소리와 함께 산산 쪼각이 나며 흩어지고 말았고 하늘 높이 뿌려졌던 두목놈과 말은 곤두박질하여 물'속에 쳐박히고 말았다.

㊶ 물'속에 쳐박힌 두목놈이 허우적거리는데 강 저 쪽 기슭에 닿은 복동이의 화살이 그 놈의 숨통을 흝어 버리고 말았다. 순간 사납게 흐르던 강물도 복동이의 승리를 축하해서인지 어느덧 잔잔해지고 은'빛을 빛내며 너울너울 춤추며 흘러 갔다.

㊷ 승리한 복동이는 발'걸음도 가볍게 고향으로 향했다.

㊸ 그새 보이지 않던 제비가 돌아 와서 《지지배배》 즐겁게 지저귀는 것을 보고 복동이가 돌아 오는 것을 안 할아버지는 문밖으로 뛰여 나왔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복동이의 기쁨 넘친 소리, 뛰여 오르는 고양이, 할아버지는 복동이와 야웅이를 번갈아 껴안고 볼을 비비여 주었다.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 와 그들을 얼싸 안고 돌아 갔다.

㊹ 잃어졌던 행복은 다시 마을에 찾아 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선녀들은 다시 춤과 노래와 힘을 주었고 풍년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행복의 피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굳게 마음들을 합쳤다.

㊺ 용감하게 싸워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다시 찾은 복동이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며 마을의 행복을 꽃 피웠다.

(끝)

(작문)

붉은 넥타이

나는 잡지 《소년단》 호에 실린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나는 《붉은 넥타이》라는 소제목을 여러 번 곱씹어 읽었습니다.

리 병모 영웅 오빠는 붉은 넥타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웅 오빠는 집에다 붉은 넥타이를 걸어 두는 곳까지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돌아 오면 차근차근 접어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에는 물을 뿜어 자리 밑에 깔고 잤습니다. 이것은 영웅 오빠가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는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의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난날은 그렇지 못 하였습니다.

나는 지난날 붉은 넥타이를 그저 매고만 다녔지 그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소년단원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가도 똑똑히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겨진 넥타이도 그냥 매고 다니거나 넥타이를 매지도 않고 학교에 오다가 동무들의 충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리 병모 영웅 형님 뿐만 아니라 누구나 붉은 넥타이의 참뜻을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동무들은 다 공부도 잘 하고 소년단원의 의무도 훌륭히 지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단의 국희 동무와 순환 동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구김'살 하나 없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이들은 최우등생들이며 모범 소년단원입니다.

나는 이들을 따라 리 병모 영웅 오빠처럼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리라고 마음 다지였습니다.

황해북도 곡산군 곡산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리 옥란

(작문)

갈림'길에서

지난 여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올 때 령등 갈림'길에서 있은 일입니다.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오른 편 숲 속 소나무 우로 다람쥐 한 마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기여 올라 가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책가방을 얼른 벗어 놓고 살금살금 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람쥐를 잡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 《얘야, 문암리로 가자면 어느 쪽 길로 가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칫 하고 돌아 보니 웬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이 바람에 다람쥐란 놈도 놀라 제 갈 데로 내빼고 말았습니다.

부아가 난 나는 《몰라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갈림'길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서성거리시였지만 나는 부아가 난 김에 알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얼마쯤 걷고 있는데 또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놈은 내가 책가방을 벗어 놓는 사이에 어디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어이 잡아 보려고 다람쥐를 찾아 헤매였습니다. 이럴 때 아래 켠 굽이돌이'길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였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우리 분단 녀자애들이 내가 방금 만났던 그 할머니의 짐을 들고 문암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에야 나는 퍼뜩 어제 《소년단》 잡지에서 읽은 리 병모 영웅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리 병모 영웅 형님은 언제나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배우며 생활했습니다. 병모 형님은 《소년단원은 동무를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에 밝고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나는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 하여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량강도 부전군 차일 중학교 김 일홍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나는 잡지 《소년단》 8 호에 실린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감동시킨 것은 영웅 형님이 소년단 반장으로서 말보다 행동으로 반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반장이지만 영웅 형님처럼 반 사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가 좀 멀다고 하여 반 동무들 가운데서는 이따금 지각을 하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타일러 주지 못 하고 듣기 싫게 짜증만 부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는 반 사업이 잘 안 된 것이 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영웅 형님처럼 나의 모든 행동으로써 반 동무들의 모범이 되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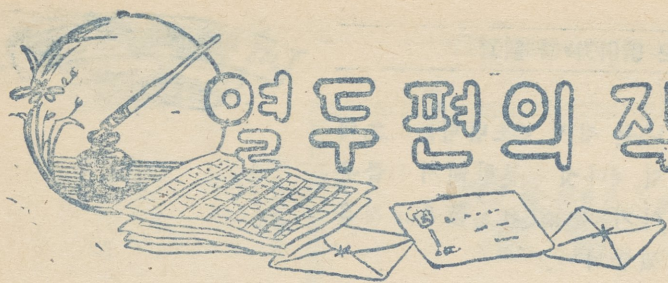
그리하여 나는 동무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모범 반이 되기 위해 힘 쓰자고 의논했습니다.

반 동무들은 모두 나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반 동무들은 모두 소년단원의 의무를 수첩에 적어 넣고 한 조항씩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에서 조직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반 동무들이 제일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 번에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으로 분단에서는 산열매와 약초를 따는 일을 하였는데 이 때도 우리 반 동무들이 제일이였습니다.

함남도 신상군 동천 중학교 4 분단 박 형순

열두 편의 작문을 읽고

윤 복 진

잡지 《소년단》은 금년 8 호부터 12 호에 걸쳐 공화국 영웅 리 병모 형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와 그를 읽고 느낀 소년단원들의 작문을 편집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웅의 모범을 배우며 따르려는 소년단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재미 있는 편집이였다고 봅니다.

잡지의 지면 관계로 비록 열 두 편의 작문 밖에는 실리지 못 했지만 편집부에는 수천 통의 작문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리 병모 영웅처럼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보람 있게 배우며 살려는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것들이였습니다.

다 훌륭한 작문들이였지만 여기서는 잡지에 실린 열 두 편의 작문을 두고 이야기해 보렵니다.

작문들은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빛갈과 향기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모두 서로 다른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한 영웅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은 작문이여서 자칫하면 모두가 내용이 비슷해질 수도 있고 똑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두 편의 작문들은 리 병모 영웅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를 읽고 배운 점들과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찾아 내고 그것을 저마다 자기 생각 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매개 작문들에서 그러한 점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리 병모 영웅의 어린 시절의 학습에 대하여 자기의 감상과 결의를 적은 작문—송도 중학교 정 한추 동무가 쓴 《나의 학습장》(8 호)은 잘 된 작문의 하나입니다.

정 한추 동무는 병모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 났는지 걸으면서 읽다가 길'가의 나무 그늘에 앉아서까지 읽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함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뉘우친 것도 깊이 생각한 끝에 썼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작문은 학습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죄다 이야기하려는 욕심에서 좀 이야기가 널려진 감을 줍니다.

이에 비해서 개풍군 유릉 농업 학교 단 최 옥녀 동무가 쓴 작문 《비 오는 날》(8 호)은 내용이 잘 정리된 작문이였습니다. 얼핏 보면 단조로운듯 하나 아주 깨끗하게 쓴 작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억수로 퍼붓는 비를 보고 학교에 갈가 말가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고 나서는 대목은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시간이 늦어 교실에 들어 가지 못 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시간에 못 배운 기하를 동무들한테서 열심히 배워 이튿날 기하 시간에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동무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간 것은 참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병모 영웅처럼 자기의 귀중한 학습장을 잘 보관도 하지 않고 많은 책을 읽지도 못 한 것을 뉘우치는 내용으로 쓴 신포 어항 중학교 정 도천 동무의 작문 《나의 결심》도 기억에 남는 작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문은 좀 건숭건숭 빨리 써 내려 간듯 한 느낌을 줍니다. 좋은 작문을 쓰자면 붓을 들기 전에 자기가 쓰려는 이야기를 오래오래 생각해 보고 줄거리가 선히 떠오를 때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을 생각하며 쓴 전천군 철산 중학교 백 금옥 동무의 작문 《내 고향》(9 호)도 좋습니다.

리 병모 영웅처럼 자기들의 어린 힘으로 고향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 나가려는 그 갸륵한 생각과 생활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울려 줍니다.

해주 사미 중학교 김 종성 동무가 쓴 작문 《우리 집 염소》(9 호)도 좋은 작문입니다. 무엇보다 리 병모 영웅의 모범과 자기 생활을 잘 결부시킨 점이 좋습니다. 종성 동무는 리 병모 영웅은 농장의 옥수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 주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농장의 옥수수 잎을 뜯어 자기 집 염소를 먹였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직도 내 것은 귀중히 여기면서도 농장의 것은 남의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의 그릇된 마음을 곧 잘 찾아 내였습니다.

《소년단》 잡지 11 호에서는 영웅의 아름다운 도덕 품성과 례절을 본받아 배워 나가려는 자기들의 생각을 적은 작문들이였습니다.

운하 중학교 최 영자 동무의 작문 《관리 위원회 앞을 지날 때마다》와 평양 동신 중학교 강 미옥 동무의 작문 《옥류교에서 만난 어머니》는 자기의 생활과 잘 결부시킨 좋은 작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영자 동무의 작문에서는 오늘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 보며 마음 속으로 높이 우러러 보는 그 심정을 잘 나타내였습니다.

비록 어린 눈들이나마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서 로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그러한 로동으로 하여 우리 소년단원들이 더 없이 행복하게 배워 나간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강 미옥 동무의 작문 《옥류교에서 만난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평양에 처음 온 어느 한 어머니가 애기를 업고 비를 맞으며 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우산을 받게 하며 뻐스 정류소까지 데려다 주고서도 집에 돌아 와서는 찾아 가는 그 집까지 안내해 드리지 못 한 것을 뉘우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확실히 이 두 작문을 쓴 동무들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작문을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낼 줄 압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아무 것이나 다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 번 《소년단》 잡지 12 호에는 소년

단 조직 생활을 내용으로 한 작문들이 실렸습니다.

부전군 차일 중학교 김 일홍 동무가 쓴 《갈림'길에서》는 다람쥐를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길을 묻는 낯선 할머니에게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해 버린 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려 낸 것이 좋습니다. 김 일홍 동무는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 하여 소년단원은 동무를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이 밝아야 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녀학생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서야 가슴이 뜨끔하게 자기의 잘못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 병모 영웅의 모범을 자기의 일상 생활에서 본받으려는 마음을 아주 실감 있게 잘 나타냈다고 봅니다.

황해북도 곡산 중학교 리 옥란 동무가 쓴 《붉은 넥타이》는 깊이 있는 작문입니다. 옥란 동무는 병모 영웅처럼 붉은 넥타이의 참다운 뜻을 몰랐기 때문에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소년단원의 영예를 때때로 잊어버리군 하였다고 옳게 말했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여기는 동무들은 공부도 잘 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도 잘 한다는 것도 옳게 보고 한 말이라고 봅니다. 붉은 넥타이에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 있다는 참된 뜻을 알기 때문에 소년단원의 의무를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옥란 동무는 생활을 보고 옳게 판단할 줄도 압니다. 이것은 좋은 글을 쓰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 두 편의 작문을 쓴 동무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은 것은 학습과 소년단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실지 행동에 옮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소년단 조직 생활, 례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의 좋은 작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작문들이 좋은 내용을 잘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제목도 내용에 어울리게 잘 골라 달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문을 짓는 데 있어서 내용을 잘 나타내는 제목을 찾아 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용을 더 잘 정리하고 그 좋은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바닥만 한 접시에 맑은 물을 담아 해'빛 밝은 날 밖에 내놓으면 끝 없이 넓고 큰 하늘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문을 쓸 때도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는 생활의 어느 매듭을 찾아 내서 군소리를 하지 않고 한두 마디로써 큰 내용을 인상 깊게 나타내야 합니다.

끝으로 동무들이 자기 작문에서 리 병모 영웅처럼 공부하고 생활하리라고 다진 훌륭한 결의와 맹세를 빛나게 실천에 옮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 학습 문제 풀이 !

력사 (중등반 1 학년)

우리 나라의 고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왕조가 어떻게 변해 내려 왔는가를 차례로 들어 보시오.

세계 자연 지리 (중등반 2 학년)

6 대주, 4 대양을 그 크기의 차례로 들고 각 대주의 면적과 주민 수를 들어 보시오.

력 사

△ 고대 국가의 형성

예족 (기원 전 5 세기 경) → 고조선

맥족 (기원 전 3 세기 경) → 부 여

한족 (기원 전 3 세기 경) → 진 국

△ 3국의 형성

→*고구려 인민의 일부는 699년 발해 국가를 이룸.

△ 후 3 국

세계 자연 지리

6 대주

첫째~아세아주
면적 4,350만 km²
주민 17억 이상

둘째~아메리카주
면적 4,250만 km²
주민 약 4억

세째~아프리카주
면적 3,000만 km²
주민 2억 3,000만

네째~남극주
면적 1,400만 km²
*남극 대륙에는 사람이 살지 못 한다.

다섯째~구라파주
면적 1,000만 km²
주민 6억 이상

여섯째~대양주
면적 900만 km²
주민 1,500만

4 대양

첫째~태평양, 둘째~대서양, 세째~인도양, 네째~북빙양.

? 학습 문제 풀이 !

물리 (중등반 2 학년)

자동차는 짐을 많이 실으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물체의 속도를 알고 기계의 공률을 구하여 보시오.

대수 (중등반 2 학년)

유리수 산법 때 어떤 조건에서 합 $a+b$는

첫째, $a-b$보다 큽니까?
둘째, $a-b$ 와 같습니까?
세째, $a-b$보다 작습니까?
네째, 령(0)과 같습니까?

(학습 문제 풀이 해답)

물 리

공률의 공식

$N = \frac{A}{t}$에서

$A = F \cdot S$이므로

$N = F \cdot \frac{S}{t}$로 된다.

그런데

$\frac{거리}{시간} = 속도\ (\frac{S}{t} = u)$

이므로

공률＝힘×속도 ($N = F \cdot u$) 로 된다.

즉 공률은 물체를 끄는 힘에 물체의 속도를 승한 것과 같다.

공률이 일정할 때 힘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때문에 자동차에 짐을 많이 실으면 끄는 힘이 커지며 대신 자동차의 속도는 늦어지고 짐을 적게 실으면 끄는 힘이 작아지며 속도는 빨라진다.

물체의 속도를 알고 기계의 공률을 구할 수 있다.

례를 들면 기중기가 500kg중의 짐을 0.7m/초의 속도로 들어 올린다면 그의 공률은

$N = 500\ kg중 \cdot 0.7m/초$

$= 350 \frac{kg중m}{초}$

$= 4.67$ 마력이다.

(1 마력은 $75 \frac{kg중m}{초}$ 이다.)

대 수

첫째, $a+b > a-b$가 되려면 $2b > 0$ 즉 $b > 0$으로 되여야 한다.

a는 어떤 수든지 b가 정수면 된다.

둘째, $a+b = a-b$가 되려면 $2b = 0$ 즉 $b = 0$으로 되여야 한다.

세째, $a+b < a-b$가 되려면 $2b < 0$ 즉 $b < 0$으로 되여야 한다.

네째, $a+b = 0$이 되려면

ㄱ. $a = 0, b = 0$이라야 하며

ㄴ. $a+b = 0$ 즉 $a = -b$ 이라야 하며 a와 b의 절대치는 같고 부호가 달라야 한다.

(척척할아버지)

유리에 대한 이야기

일남—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할아버지—오냐, 너희들도 공부 잘 했느냐?

복남—할아버지, 오늘은 유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찾아 왔습니다.

척척할아버지—오늘은 그럼 유리 이야기를 해 보자.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을 보면 옛날 애급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5,000 년 전에 유리를 만들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 벌써 애급 사람들은 유리로 꽃병과 그릇들을 만들어 썼다니까…

복순—할아버지, 그러면 유리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유리의 기본 원료는 모래란다. 그 외에 석회석, 소다 등이 들어 간다.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비률로 섞어 높은온도로 녹여서 만든단다.

복남—할아버지, 모래는 어느 정도로 넣습니까?

척척할아버지—모래를 60% 이상 넣는단다.

복순—할아버지, 유리 만드는 데는 어떤 모래가 좋습니까?

척척할아버지—좋은 모래라는 것은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인 산화규소(SiO_2) 성분을 98% 이상 가지고 있는 규사라는 모래를 말한다. 이런 좋은 모래는 황해남도의 몽금포와 구미포에 가면 얼마든지 있단다.

복순—할아버지, 모래와 석회석, 소다를 가지고 어떻게 유리를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먼저 기계로 모래와 석회석을 보드랍게 빻은 다음 소다를 섞어 가마에 넣는다. 다음에 원료가 들어 간 가마에 불을 때면 약 700 도 이상의 온도에서 모래와 석회석, 소다들 사이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 난다. 이 때에 탄산소다와 탄산칼슘이 분해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이 탄산가스는 모래와 작용해서 규산염이란 것을 만든단다. 이것은 아직 완전한 유리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 계속 온도를 1,200도 가량 올린 다음 놓아 두면 유리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가 다 없어지고 규산나트륨, 규산칼슘, 산화규소의 혼합물이 유리로 되는 것이다.

복남—할아버지, 판유리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판유리를 만들려면 엿물과 같이 된 유리물을 기계에 넣어서 천천히 식히면서 두 개의 둥그런 통이 맞붙은 로라 사이로 올려 보낸다. 그러면 엿판대기 같은 판유리가 끊임 없이 우로 솟아 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알맞춤

한 크기로 되였을 때 우에서 로동자 아저씨들이 잘라 내게 된다.

복순—할아버지, 그러면 유리병이나 전구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응, 너희들은 비누'물 풍선을 만들면서 재미 있게 논 적이 있지?

일동—네.

척척할아버지—유리병이나 전구 같은 것은 너희들이 비누'물 풍선을 만드는 것처럼 불어서 만든단다. 유리물을 속이 궁근 쇠 막대기 끝에 묻혀 가지고 병 모양으로 된 틀 속에 넣고 입으로 불면 병이 된단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옛날에 하던 낡은 방법이지. 지금은 사람들이 일일이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형에다 기계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척척 만들어 낸단다.

복순—할아버지, 색이 나는 유리판이나 유리병, 유리 그릇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너희들은 색유리를 만들자면 물'감 같은 것을 넣는다고 생각하느냐?

일동—네.

척척할아버지—그렇지 않단다. 보통 유리에 어떤 금속들을 적당히 섞어 주면 색유리를 만들 수 있단다. 례를 들면 산화망간을 섞으면 자색 유리가 되고, 우란 화합물을 섞으면 황록색 유리가 되고, 산화 코발트를 섞으면 진한 푸른색 유리로 되고, 니켈 화합물을 섞으면 붉은 자색 유리로 된다. 그리고 금을 섞으면 붉은 색 유리로 되는데 인조 보석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복남—할아버지, 창문에 끼운 유리를 자세히 보면 록색빛이 도는데 그것도 어떤 금속을 섞어서 그렇습니까?

척척할아버지—그것은 어떤 금속을 섞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래 속에는 철분이 섞여 있는데 그 철분을 말끔히 뽑아 버리지 못 했기 때문이란다.

순길—할아버지, 그러면 유리를 맑게 하자면 모래 속에서 철분을 뽑아 내면 됩니까?

척척할아버지—암, 그렇구 말고.

복순—모래에서 철분을 뽑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척척할아버지—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쌀함박으로 쌀을 일듯이 물로 씻어서 없애는 방법과 전기 자석으로 갈라 내버리는 방법이 있단다. 그런데 흔히 전기 자석으로 없애 버리는 방법을 많이 쓴단다.

순길—할아버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여지지 않는 유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든 유리입니까?

척척할아버지—그런 유리들을 안전 유리라고 한단다. 안전 유리로서는 망입 유리라는 것이 있단다. 망입 유리는 유리 사이에 쇠그물을 넣어서 만든 것이란다. 다음에는 3중 유리라는것이 있지. 3중 유리는 두 개의 얇은 판 유리 사이에 유리처럼 잘 보이는 질긴 셀룰로이드 판을 끼워서 세 겹으로 만든단다. 그러니 잘 깨여지지도 않고 또 깨여진다 하더라도 유리 조각들이 흩어지지 않는단다. 그래서 이런 3중 유리는 장갑차나 비행기, 전차 같은 데 끼우는 유리로 많이 쓰인단다.

순길—할아버지, 강질 유리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리입니까?

척척할아버지—응, 그것도 안전 유리의 한 종류이지. 강질 유리는 약 650 도의 열을 가하였다가 빨리 공기 속에서 식혀서 만든단다. 이 강질 유리는 800 그람이나 되는 쇠'덩어리를 1 메터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여지지 않는단다.

이러한 강질 유리를 남포 유리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 낸단다.

복순—할아버지, 유리로 실도 뽑아 천도 짜고 솜도 만들 수 있다는데 정말입니까?

척척할아버지—암, 정말이고 말고. 유리실로 짠 천은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테프나 피복선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또 소방대 아저씨들이 입는 의복이나 무대의 막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인단다. 또 유리솜도 만드는데 이 유리솜은 열을 잘 막기 때문에 랭장고나 배, 비행기 같은 데서 열을 막아야 할 곳에 많이 쓰인단다.

복남—렌즈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렌즈를 만드는 광학 유리는 모래와 석회석 그리고 연단이라는 산화연을 섞어서 만든다. 그런데 렌즈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양 대로 일일이 기계로 갈아서 만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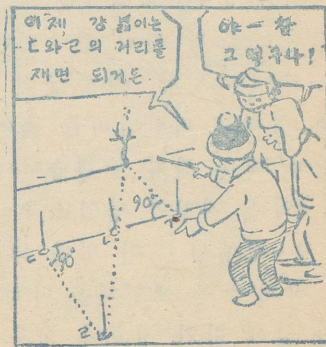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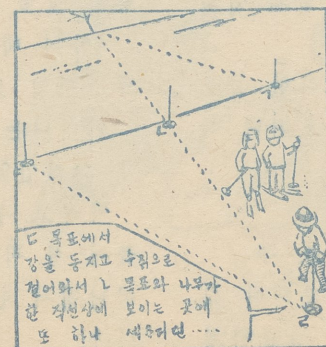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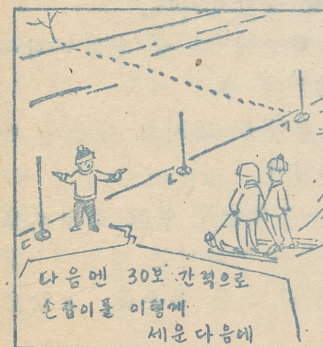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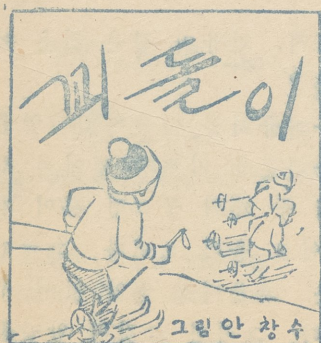
복순—꽃병이나 물'병 같은 데 있는 꽃무늬는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그것은 연마 기계로 일일이 쓸고 깎아서 만든다.

일동—할아버지, 오늘 유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척척할아버지—오냐,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찾아 오너라.

일동—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만화

남조선을 잊지 말자!

누나를 찾아와 같이 살자요

박 명 철

어슬어슬 땅'거미가 지자 거리의 구멍가게들에서는 모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놈들이 탄 자동차 소리만이 고요에 깃든 거리를 어지럽게 울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럴 무렵 한쪽 어깨에 지게를 걸치고 심양동 쪽으로 힘 없는 걸음을 옮기던 지게'군은 널빤지를 둘러친 낮은 담장집 앞을 지나다가 소스라치듯 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 났습니다.

《앗?!》굳어진듯 서 버린 지게'군은 푹 꺼지고 피'기 잃은 눈에 불을 번쩍 담았습니다.

먹칠을 한듯 한 어둠 속 저쪽 길에 웬 사람이 쓰러져서 연신 《웩! 웩!》 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게'군은 그 모양이 하도 애처로와 그 곁으로 다가 갔습니다. 순간 지게'군은 또 한 번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너 넌 우리 마을 영식이가 아니냐, 응?!》

지게'군은 영식이를 등에 둘쳐 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 갔습니다.

의사는 한참 지게'군의 초라한 몰골과 영식의 더벅머리를 훑어 보더니 딱 잡아 떼듯 잘라 말했습니다.

《이젠 시간이 넘었소.》

《…선생님! 한 번만 봐 줍소…》

지게'군은 애원하듯 이렇게 말하며 의사 앞에 다가 섰으나 의사는 쌀쌀하게 도리머리를 흔들며 안으로 쑥 들어 갔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같으니…》

지게'군은 《후》 하고 한숨을 쉬고 나서 하는 수 없이 소년을 지게에 올려 놓고 구두닦이 통을 한 손에 들고 서울시 성북구 심양동 판자'집 마을에 돌아 왔습니다.

《…그게 순희 아범 아뇨?》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근심 섞인 녀인의 말'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영식의 어머니였습니다.

굶어서 텅텅 부은 몸을 끌고 간신히 지팽이에 의지해 선 영식이 어머니가 지게'군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영식이가 학교에 간 게 아직 안 돌아 왔어요…그게 아침도 못 먹구 나간 게…》

《예—? 학교를요!》

지게'군은 영식이를 지게에서 내려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애의 구두닦이 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학교에 간 줄 알았더니…구두닦일 갔댔구나…》

어머니는 지팽이를 내치고 아들을 마구 그러안았습니다.

이윽고 부엌 거적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선 지게'군과 어머니는 영식의 주머니에서 한 장의 노란 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 겉봉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습니다.

《미아동 2 번지 영숙 누나에게》

지게'군은 재빨리 봉투를 뜯어 그 안에 든 종이 쪼각을 펼치고 떠염떠염 읽었습니다.

《영숙 누나 잘 있어?

누나가 집을 떠난 뒤부터 나는 돈을 모으고 있어…

…머지 않아 누나는 식모살이를 안 해도 돼…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편지에는 대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식이네 집 네 식구는 며칠을 굶다 못 해 한 식구라도 덜면 나을가 해서 영숙(15 세)이를 남의 집 식모로 보냈던 것입니다. 누나에게 보내는 영식이의 이 애절한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핑 괴여 올랐습니다.

아침에 어머니를 속이고 나온 영식이는 길'가에 오가는 신사 양복쟁이를 붙들고 《구두 닦쇼—구두요.》 하며 목이 갈리도록 애걸하였습니다. 비지죽조차 못 먹고 나온 이 날은 눈이 한층 더 꺼지고 배가 막 졸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참다 못 해 저녁녘에 음식점 앞으로 다가 가서 호주머니에 몇 번이나 손을 집어 넣었댔습니다. 구두 신은 사람들을 따라 다니며 닦아 주고 받은 얼마 간의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그는 끝내 도리머리를 하고 되돌아 서고 말았습니다.

병든 어머니, 식모살이로 팔려 간 누나, 밥 달라고 조르는 동생…그 모든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영식이는 음식점 앞을 물러나 힘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시내 어느 료리점 쓰레기 통을 찾아 가 뒤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비린내 나는 물'고기 대가리를 몇 개 주어 먹고 다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화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 동네에 사는 지게'군 아저씨가 지나다가 쓰러진 영식이를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영식이는 눈을 스르르 떴습니다. 그리고 속옷 속에 손을 집어 넣더니 다 떨어진 일 원짜리 몇 장을 엄마 앞에 내놓으며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번 다음 영숙 누나를 데리구 와서 같이 살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비 오듯 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지 못 하고 영식이와 같이 이런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루 속히 미제를 몰아 내고 불쌍한 남반부 형제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제 2 회)

현 룡 균

그림 정 영만

이 전투가 있은 뒤에 상구리 일대에서는 주암리에는 적어도 3,000 명의 인민 군대가 있는데 《치안대》를 모조리 처부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불벼락을 맞은 상구리의 《치안대》놈들은 더는 날뛸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겁을 먹은 상구리의 《치안대》는 그만 해산되고 놈들은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다.

남정과 상 조양리의 《치안대》를 습격 소탕하는 데서도 소년 자위대원들의 정찰과 삐라 공작은 참으로 큰 역할을 놀았다.

《고추'가루 폭탄》

겨울을 재촉하는 추위는 사정 없이 닥쳐 오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저녁 무렵이였다. 배바우'골에서도 제일 깊은 골짜기인 살구재'골로부터 한 소녀가 부리나케 뛰여 나오고 있었다.

그는 소년 자위대원인 한 명애 동무였다.

한 명애 동무가 자위대에 보낼 쌀을 찧고 있을 때였다. 별안간 뒤'산에서 와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네 명의 《군대》가 나타났다.

순간 명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군댈가?!)

명애는 그들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그들이 입은 솜 동복은 어제 리 균석 민청원 오빠가 말한 것처럼 자봉 누빈 자리가 가로 세로 엇갈려 네모가 난 괴뢰군들이 입는 옷이였다. 총도 긴 보총이나 따발총이 아니라 짤막한 것들이였다.

(이상하구나!)

명애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앞섰다. 그 전에도 원쑤들은 몇 번씩이나 기여 들어 왔다가 그 때마다 골탕을 먹고 쫓겨 가군 하였다. 그러자 괴뢰군 놈들은 인민 군대와 피난민으로 가장하거나 때로는 괴뢰군 차림을 한 대로 몇 놈씩 무리를 지어 가지고 기여 들군 하였다. 놈들은 이렇게 해서 인민들이 겁을 먹게 하며 또 자위대를 없애 버리고 나중에는 마을을 차지해 보려는 속심이였다.

산'기슭으로 떨어진 놈들은 어느 사이에 명애의 집으로 기여 들어 와 명애를 에워 쌌다. 그 중에서 키가 작달막하고 목이 앙바틈한 놈이 방안에 누가 있는가 해서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다.

《여기 자위대 오지 않았니?》

《여긴 외따라서 오지 않아요.》

명애는 가슴이 떨렸으나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응, 집에 누가 있니?》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셔요.》

명애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꾸하였다. 말까지 주고 받아 보니 틀림 없이 인민 군대는 아니였다.

그들은 머뭇머뭇 망설이더니 주인도 찾지 않고 벌컥 문을 열어 제꼈다. 그리고는 신을 신은 채 방안으로 쑥 들어 가는 것이였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이러지 않아!)

명애는 문 밖에 피해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퍼뜩 알아 차렸는지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린 인민 군대인데 공작 나왔소. 배가 고프니 밥을 해 주오. 인민 군대를 대접해야지 좋지 않소. 닭이나 잡소. 시간이 바쁘니 빨리 빨리 해 주오.》

그 말을 들은 명애는 깜짝 놀랐다.

(뭐 인민 군대라구?! 거짓말,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쌀을 내놓으며 밥을 좀 지어 달라고 부탁하군 했어. 닭까지 잡아 바치라구? 큰 소리만 치고…)

놈들은 여간 무섭게 구는 것이 아니였다.

명애는 어머니가 부엌에 밥 지으러 나오시면 보라고 《어머니 내가 급히 다녀 오겠어요.》라는 글쪽지를 솥 뚜껑 우에 놓고 부엌을 나섰다. 그는 소년 자위대 련락망 대로 우선 김 호선 동무에게 알리고 지금 자위대 본부로 달려 가고 있는 중이였다.

자위대 본부에는 자위대장 김 지영 아저씨와 대원 리 균석 오빠만이 있었다.

명애는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죄다 말하였다. 곧 뒤따라 갈테니 놈들이 눈치 채지 않게 빨리 집에 가서 놈들을 안심시키라는 과업을 받고 되돌아 섰다.

명애를 돌려 보낸 김 지영 아저씨와 리 균석 오빠도 처음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그럴 수 밖에, 무기들은 모두 초소에 나가고 본부에는 보총 한 자루 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자위대원들은 방망이로 때려서라도 잡으려는 결심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때 한 명애 동무의 집에서는 명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수상한 놈을 《반가이》 맞아 주었다. 할머니는 화로'불을 가운데 놓고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녹여 주며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고향이 어데고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친절하게 물으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할머니는 놈들이 듣는 데서 어머니에게 《이 분들은 참으로 귀한 손님들이니 벼를 찧어서 이밥에 닭을 잡아 잘 대접하도록 해라.》 하고 일렀다.

놈들은 모두 헤벌쭉해서 기뻐했다.

벼를 찧어서 이밥을 하고 닭을 잡으려니 하고 생각하니 은근히 기뻤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놓고 가로 세로 길게 다리를 뻗치고 벌렁벌렁 드러누웠다.

그런데 할머니는 또 그 동안 심심할

테니 옥수수라도 튀여 먹으라고 하면서 옥수수까지 한 바가지 내놓아 주었다. 그러자 놈들은 재를 뒤집어 쓰며 열흘에 한 끼도 먹지 못한 놈들처럼 게걸스레 옥수수 알을 집어 삼켰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놈들의 꼴을 보며 속으로는 우습기도 했지만 그러나 긴장해서 자위대가 오지나 않나 하고 슬금슬금 밖을 내다 보았다.

집으로 달려 오던 명애는 김 호선 동무의 집에 또 들렸다. 김 왈룡, 리 완식 동무들도 와 있었다.

《저 개 같은 놈들을 어떻게 잡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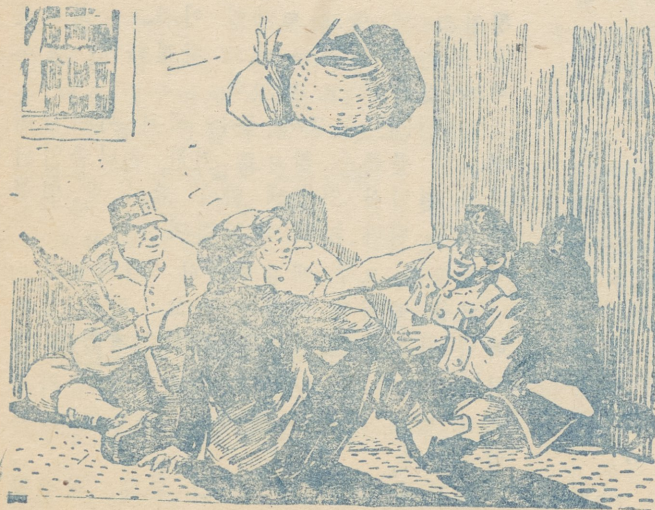
김 왈룡이 커다란 눈을 더룩거리며 말을 꺼냈다. 리 완식이가 흥분하여 말을 이었다.

《애들아, 전 번에 선생님께서 하신 김 일성 장군님 빨찌산의 고추'가루 폭탄 이야길 들었지?》

《응, 들었어!》

하고 한꺼번에 대답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고추'가루 폭탄을 맞고 갈팡질팡하는 적들을 쓸어 눕히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눈부신 투쟁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저저마다 용기가 솟아 났다.

리 완식이가 어깨를 으시대며 말하였다.

《우리들도 항일 빨찌산 투사들처럼 고추'가루 폭탄을 만들어 놈들을 잡자꾸나?》

《근데 이제 언제 폭탄을 만들겠니?》

김 호선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봐, 고추'가루를 한 줌씩 쥐고 뛰여 들면서 제창 놈들의 낯짝에 뿌리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을 거 아니가!》

그러자 모여 섰던 동무들은

《야, 거 멋진 생각이구나!》

《됐어! 어서 그렇게 하자!》

하고 환성을 올리며 완식이의 등을 한 대씩 쳤다. 완식이가 더욱 신이 나서 말하였다.

《놈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헤덤빌 때 말야, 명애는 놈들의 총을 걷어 안고 뛰여 나오란 말야. 그럴 때 우린 이 방망이들로 놈들의 대갈통을 내리 족치자!》

《그렇게 하자! 그럼 놈들은 찍 소리도 못 치고 나자빠질 거야.》

동무들은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머리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불끈 부르쥐였다.

《명애가 할 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일이야, 잘 해야 해!》

《알았어!》

명애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나서 집으로 달려 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쿵덕쿵덕 절구질을 하고 있었다. 방안에서는 놈들이 까마귀 발처럼 새까만 손으로 옥수수 알을 집어 삼키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 중 한 놈이 잊었던 무엇이나 갑자기 생각난듯 고개를 버쩍 들며 화를 냈다.

《이거 무슨 밥을 이렇게 오래 짓는 거야? 엉》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밥이 다 잦아 가요, 금방 닭을 잡아 앉혔어요.》

하며 명애가 놈들 틈으로 끼여 앉자

《응 닭을 삶는다구? 좋다, 좋아!》

하고 화를 냈던 놈은 군침까지 꿀꺽 삼키는 것이였다. 명애는 놈들에게 옥수수 알을 집어 주며 놈들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구석 켠에 앉은 놈이 총들을 모아 가지고 입만 쩝쩝 다시고 있었다.

《아저씬 총 때문에 안 되였구만요. 내가 집어 드릴 테야요.》

명애가 구석 켠에 앉은 놈에게 옥수수 알을 집어 주었다. 그러자 총을 그러안은 놈이 헤벌쭉했다.

이런 때 김 호선, 김 왈룡, 리 완식 소년들은 명애의 집 뒤'산 기슭에 이르렀다. 그들은 《군사 련습》과 《간첩잡이 련습》 때 한 것처럼 엎드려 살금살금 기여 명애의 집 부엌 뒤'문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고추'가루와 방망이가 하나씩 쥐여져 있다. 세 소년은 부엌 뒤'문으로 들어 가서 한 명애 동무의 어머니와 같이 방안으로 뛰여 들려는 것이다.

세 소년은 부엌 뒤'문에서 자위대장 김 지영 아저씨와 대원 리 균석 형님을 만났다. 김 지영 아저씨와 리 균석 형님은 세 소년을 보자 가슴이 뜨거웠다.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대견해서 세 소년을 꽉 부둥켜 안아 주었다.

그 순간 자위대원들과 소년들의 눈에서는 자기의 고향 땅에 기여 든 더러운 원쑤들을 단꺼번에 족쳐 버리고야 말려는 복수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자위대원들과 소년들은 나는듯이 방안으로 뛰여 들며 소리 쳤다.

《꼼짝 했단 쏜다!》

그 순간 소년들은 들고 간 고추'가루를 놈들의 면상에 마구 쥐여 뿌렸다.

《개놈아, 손을 들어라!》

리 완식 소년이 부르짖었다. 놈들은 눈깔을 비비며 캑캑 재채기를 했다. 자위대원들과 소년들은 방망이로 놈들을 후려 갈겼다.

명애가 총을 끌어 안고 빠지려는 찰나에 옆에 있던 놈이 발'길로 명애를 차던졌다. 그만 명애는 총을 그러안고 엎으러졌다. 그 놈이 총을 빼앗으려는 위급한 순간에 리 균석 형님이 때리는 방망이가 놈의 대갈통을 내리쳤다. 놈이 픽 하고 쓰러졌다. 다른 놈들도 더 맥을 쓰지 못 하고 나가 넘어졌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네 놈이 꽁꽁 묶이웠다.

《너희들은 참 잘 싸웠다! 아주 훌륭한 소년단원들이다!》

김 지영 아저씨가 감격을 금하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와 소년단원들을 에워싸고 칭찬하였다.

졸개놈이 배바우'골에서 골탕을 먹었다는 것을 안 우두머리들은 더욱 미친듯이 날뛰였다.

《국방군》 장교 다섯 놈이 졸개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빨갱이》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호통을 치면서 살구재 고개 밑에 외따로 있던 김 호선 동무네 집에 또다시 나타났다.

이 번 놈들은 경각성이 높았다. 놈들은 들어 오자 우선 가족의 수부터 세여 보고 마당 끝에 보초까지 세웠다. 그리고는 호선 동무의 집으로 몰려 들어 갔다. 놈들은 요전처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내놓고 통닭을 잡아 바치라고

울려 멨다. 놈들의 심'보인즉 산'길을 타고 삼십 리나 걸어 와서 출출하기도 했고 또 이런 외딴 곳에서 자위대를 《습격》하자는 것이였다.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김 호선 소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김 호선 소년은 생각 끝에 물 초롱을 들고 룡난개울로 나갔다. 보초놈은 밥을 짓기 위해 개울로 물을 길러 가는 줄로만 알았다.

김 호선 소년은 숲 속을 따라 나는 듯이 내려 가서 자기들의 련락망에 알리고 되돌아 왔다.

한참만에야 물을 길어 가지고 들어 오는 호선을 본 보초놈은 약이 올라 원숭이 눈알처럼 된 눈깔을 까뒤집고 소리쳤다.

《임마, 어데 갔댔어?》

《가긴 어델 가겠나요, 아저씨두.》

호선은 태연하였다.

《그럼 왜 이자야 오는 거야?》

《아저씨들께 대접하려고 뱀장얼 잡고 있었어요.》

《요놈의 자식이.》

놈은 발칵 화를 내며 호선을 흘어 보았다. 놈도 하는수 없었던지 씩씩 하더니 호선이를 집으로 들여보냈다.

호선의 형 김 호섭(평원 중학교 학생) 형님은 놈들과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닌 밤'중에 살구재 밑에서는 요란한 총'소리가 울렸다. 자위대원들과 소년단원들이 불의의 습격을 들여 댄 것이다. 그들은 놈들의 보초부터 해 제끼고 방안으로 뛰여 들어 왔다.

《손 들엇!》

자위대원들과 소년단원들은 전 번처럼 고추'가루를 놈들의 낯짝에 뿌렸다. 놈들의 시중을 드는 척 하던 호선이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고추'가루를 놈들에게 뿌렸다.

아래 웃문으로 시퍼런 날창들이 불쑥 불쑥 나타났다. 호선이가 놈들의 무기를 걸어 안고 밖으로 내뛰였다.

괴뢰군 장교 다섯 놈도 이렇게 《고추'가루 폭탄》에 녹아 나고 말았다.

놈들은 꽁꽁 묶이운 채 자위대 본부로 향했다. 고개를 푹 떨구고 맥 없이 걸어 가는 놈들의 뒤에는 새'별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소년단원들이 번쩍이는 날창을 겨누고 따라 간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주암 마을의 《새'별》들은 놈들을 앞세우고 힘차게 걸어 가고 있었다.

× ×

주암리 사람들과 소년단원들은 여섯 차례의 큰 전투에서 수백 명의 미국놈들을 족쳐 버렸다. 그 중 돌고개 전투한 곳에서만도 미군 살상 105 명, 포로 1 명 기타 찌프차와 자동차를 파괴하고 많은 무기를 앗아 냈다.

그리고 몰래 기여 드는 괴뢰군 놈들과 간첩놈들만 하여도 40여 놈이나 잡아 냈다.

이렇게 원쑤를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 낸 주암 마을 사람들의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는 소년단원들의 눈부신 투쟁 이야기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주암 마을 소년단원들은 이렇게 부모를 도와 적후 공작도 하고, 놈들의 전화선도 끊고, 마을에 기여 든 괴뢰군 놈들도 잡는 등으로 놈들의 침입으로부터 고향 마을을 지켜 냈다.

소년단원들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한 명애, 리 완식, 김 왈룡 동무들에게는 공로 메달을 수여하였다. 김 호선 소년을 비롯한 많은 소년단원들은 도와 군에서 많은 표창장과 선물을 받았다.

어제'날의 이 용감한 소년단원들이 오늘은 조국의 훌륭한 아들딸들로 자라나 조국 보위 초소에서, 혹은 당과 정권 기관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우고 있다.

(끝)

류 시 호

버마 려행을 마친 우리는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땅에 들어 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레오폴드빌 콩고에 먼저 가 보기로 했습니다. 콩고는 레오폴드빌을 수도로 하는 콩고와 브라자빌을 수도로 하는 콩고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애국적 무장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레오폴드빌 콩고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콩고강을 따라 레오폴드빌 콩고의 수도 레오폴드빌에 이르렀습니다.

인구는 약 4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이 레오폴드빌 거리에는 한쪽에는 훌륭한 집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문도 제 대로 달지 못한 초라한 집들이 촘촘히 늘어 서 있었습니다.

《저 쪽의 별장 같은 집들이 있는 데가 백인놈들이 사는 구역이고 이 쪽의 보잘것 없는 집들이 있는 곳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란다.》

이 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콩고 소년은 자기 나라에서 아직도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데 격분해서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도 이름이 레오폴드빌이라는 말부터가 기분 나쁜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은 콩고의 지난 날의 력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15 세기에 포도아인들의 침략을 받았고 그 후 1908년 11월에는 벨기의 식민지로 되였답니다. 이 때 벨기 왕 레오폴드라는 자는 자기 이름을 따라 콩고의 수도를 레오폴드빌이라고 한 것이랍니다.

오래 동안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 나기 위해 식민주의자들과 투쟁하여 온 콩고 인민은 1960년 6월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계속 콩고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콩고 인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미제놈들은 벨기 군대를 철거시키고 콩고의 《법과 질서》를 세운다는 구실 밑에 자기들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을 끌어 들이고 마침내는 저들의 검은 배'속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리하

여 1961년 1월에는 콩고 정부 수상이며 콩고 인민의 영웅인 루뭄바를 학살하고 저들의 앞잡이들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유엔군 주둔 기간이 끝나자 미제놈들은 할 수 없이 유엔군을 거두고 이제는 저들의 군대를 풀어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투쟁에 나선 콩고 인민들을 총칼로 억누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의 괴뢰인 아둘라를 내세워 콩고 인민을 탄압하려 하였으나 괴뢰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세가 높아지자 아둘라 대신 쏨베란 놈을 내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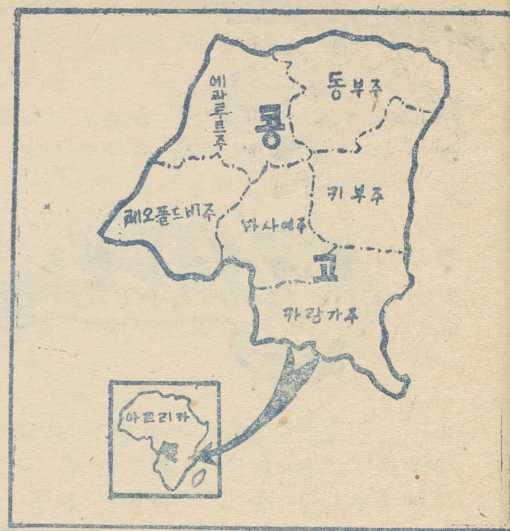
그러나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위해 나선 콩고 인민의 투쟁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제는 저들의 군대와 무기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막아 보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고 소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도 레오폴드빌 거리로는 수 많은 미국놈들의 땅크와 군대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지나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금치 못 하면서 탄가니카 호반을 따라 동북 쪽으로 올라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 콩고 인민 무장 부대가 괴뢰 군대를 족치면서 남쪽으로 밀고 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괴뢰 군대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용감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15~16 세의 소년과 녀성 대원들도 끼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민 무장대의 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민 무장대는 처음 활과 창으로 싸움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중무장을 갖추고 싸움을 한단다.》

소년 전투원은 매우 자랑스러운듯 주먹을 내휘두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전투 부대는 북부 카탕가주의 소재지 알버트빌을 점령하고 바운드인빌을 거쳐 중요 군사 기지인 카미나로 공격해 들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쳐들어 가고 있는 다른 한 전투 부대는 동부주의 소재지 스탠리빌을 점령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콩고 인민 무장대는 콩고 령토의 5 분의 1을 해방하고 동부와 서부에는 림시 정부까지 세웠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제와 그의 주구 쏨베 도당이 제아무리 날뛰여도 용감한 콩고 인민 무장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야 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찌는듯 한 무더위도 시그러진 저녁 무렵 우리는 콩고강을 따라 계속 동북 쪽으로 려행을 계속했습니다.

콩고강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콩고 인민들의 기상을 말하여 주는듯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 하류의 너비는 보통 40~50 리가 되며 장마철에는 100 리도 더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였습니다.

우리가 콩고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강물 안에서 물'소, 말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놀고 있었는데 어떤 동물은 물을 분수처럼 뿜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애들아, 저것 좀 보렴. 막 물을 뿜어 올리고 있는 것이 하마(강에서 사는 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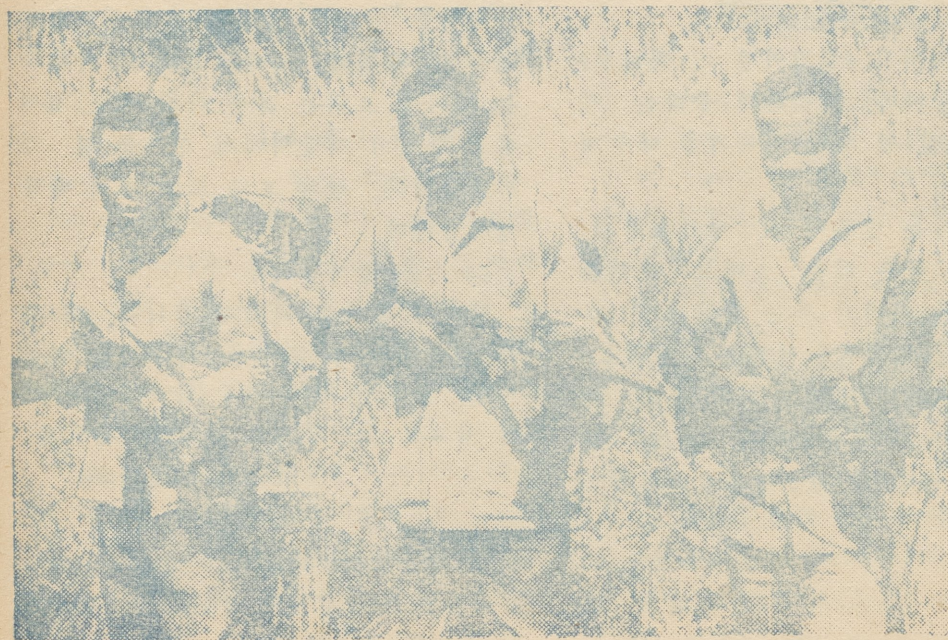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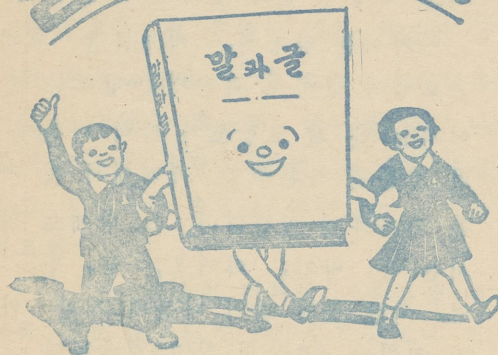
콩고 소년은 이렇게 말하면서 콩고강에는 여러 가지 보기 드문 동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이 나라에 특히 많은 것은 지하 자원이였습니다.

참대의 수림이 우거지고 사자 울음이 메아리치는 카탕가 고원은 보물의 매장터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서는 금강석, 케르마늄 그리고 유도탄과 분사식 비행기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코발트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는 동, 망간, 라디움, 금, 은, 아연, 석탄 등이 많이 나는데 정말 카탕가 고원은 《보물의 창고》였습니다.

콩고 인민은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땅, 풍부한 재물을 더는 미제 원수놈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콩고 인민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며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유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콩고(레오폴드빌)의 애국적 인민 무장대원들

보람찬 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숙희네 반 동무들을 찾아 가니 마침 《설맞이 모임》 때에 할 노래와 춤을 련습하느라고 울긋불긋 곱게 차린 반 동무들이 한 방 가득 모여 있었어요.

남이는 방에 들어 서다가 눈을 크게 뜨며 《야, 련습 때도 차림새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너희들 〈설빔〉은 더 굉장하겠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숙희가 《설빔이란 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동무들과 《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습니다.

《〈설〉이라는 말부터 시작할가요?

〈설〉이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날을 〈설날〉이라고 하여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즐거운 명절로 쇠며 지난 해 한 일을 총화하고 새 결심들을 다지는 것입니다.

〈설날〉이 거의 오게 된 때를 〈설밑〉이라고 하며 〈설날〉의 바로 전 날을 〈섣달 그믐〉이라고 합니다. 〈섣달〉이라는 말도 〈설이 오는 달〉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설〉과 〈섣〉은 같은 말이였답니다.

지금도 〈숟가락〉이라고 하면서 〈밥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섣달 그믐을 다른 말로 〈까치설〉이라고도 하며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를 다 보내는 날이니까 역시 명절이지요.

예전에는 이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섭이 하얗게 센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옛'이야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면서 새웠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설빔〉을 입고 즐거운 〈설맞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설빔〉이라는 말은 〈설날에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설날 아침이면 이른 새벽에 일어 나 〈설빔〉을 곱게 차려 입고 웃어른들에게 〈세배 (설 인사)〉를 드립니다…》

이 번에는 영희가 옥이더러 《새해 축하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옥이는 새해를 앞두고 먼 곳에 있는 친척들, 동무들, 선생님들에게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책갈피에서 편지를 몇 장 꺼냈습니다. 펼쳐 보니 모두 새해 축하 편지입니다.

《그리운 할머님께!

할머님, 즐거운 새해가 옵니다. 이 해에 할머님 더욱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해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겠습니다.

1964년 12월 15일

손녀 길녀 올림》

《존경하는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신 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고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1964년 12월 20일

김 철수 올립니다.》

《사랑하는 철식 동무!

새해를 축하해요.

새해에도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생활을 더 잘하여 우리 모두 영예로운 모범 소년단원이 되여 아버지, 어머니들을 더 기쁘게 해 드리자!

내내 몸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1964년 12월 25일

영남이로부터》

《조국 보위 초소에 계시는 오빠께!

오빠가 총을 잡고 서 계시는 초소에도 희망의 새해는 밝았겠지요? 오빠, 새해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축하도 함께 전합니다. 영철이는 특별히 부탁한다고 하더니 지금 제가 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빠, 이 해에도 몸 건강하여 군무 생활에서 모범이 될 것을 저와 온 가족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빠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새해 내내 안녕하십시오.

1964년 12월 10일

동생 희영 올림》

이렇게 새해 축하 편지는 그리 길지 않게 축하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숙희네 동무들과 그들의 《설맞이 모임》에 꼭 들리겠다는 다짐을 하고서야 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들 《남이와 옥이》도 《소년단》 잡지를 통하여 동무들에게 새해 축하의 편지를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을 그처럼 사랑하여 준 여러 동무들에게 새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여러 동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 쓰노라고 했지만 별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있는 힘을 다해 여러 동무들의 말과 글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소년단 인사를 보내며.

남이와 옥이

섣달 그믐에》

눈 오는 날에는 왜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할가요?

물체가 진동하면 주위에 있는 공기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이는 것처럼 진동됩니다. 이 공기의 진동을 우리는 음파(소리의 파도)라고 합니다.

음파는 좁은 구멍 속으로 들어 가면 되돌아 나오지 못 하고 맙니다.

눈'송이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오는 날에는 물체가 진동할 때 생긴 음파들 중에서 많은 음파가 눈'송이의 구멍 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오는 날에는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원쑤를 무찌를 준비를 갖추고

김 유 방

지금도 평안 북도 의주나 피현군에 가면 백마산성과 림 경업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림 경업 장군은 리조 시기 충청 북도 충주 달천평에서 태여났습니다.

장군은 어려서부터 글'공부에도 힘썼지만 군사 놀음을 무척 즐겨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지게를 버텨 진을 치고 군사 유희를 하며 놀고 있는데 어떤 높은 관리들의 행렬이 그곳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관리들은 당장 지게들을 치워 버리라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경업 장군은 관리들 앞에 선뜻 나서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지게가 아니라 군사의 진입니다. 우리 진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지킬 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관리들은 경업 소년의 이 오돌진 모습을 보고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며 길을 돌아 갔답니다.

장군은 글'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면서 모든 힘을 다해 무술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장군은 과거에 들어서 벼슬을 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1634년에는 의주 부윤(지방 관리의 책임자)이 되였습니다.

부윤이 된 장군은 언제 어떤 원쑤놈들이 기여 들어도 물리칠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곳곳에 나라의 창고를 만들고 쌀과 숯을 많이 장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송골산과 봉황산 우에는 원쑤놈들이 쳐들어 오면 곧 신호로 봉화를 올릴 수 있게 만들고 성 둘레에는 못을 파고 물을 대여 두었습니다.

특히 적들을 막아 내는 데 아주 중요한 곳인 백마산성에는 어느 때든지 쓸 수 있게 쌀, 도토리, 숯 등을 땅 속에 많이 파묻어 두었습니다.

1636년 12월 12일에 송골산과 봉황산에 일제히 봉화가 올랐습니다.

청 나라 왕이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 얼음을 타고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청 나라 침략군은 림 경업 장군의 지도 밑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백마산성이 두려워 건드리지도 못 하고 서울로 곧장 쳐들어 갔습니다.

이리하여 청 나라 군대는 조선 정부가 후퇴하고 있는 남한산성을 둘러 쌌습니다. 비겁한 통치배들은 원쑤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림 경업 장군은 나라를 원쑤들에게 내맡기는 봉건 통치배들이 더 없이 미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 가 침략자들을 쓸어 눕히고 싶은 생각이 부쩍부쩍 솟아 올랐습니다.

때마침 우리 나라에 기여 들어 봉건 통치배들한테 굴복을 받은 청 나라 군대의 일부가 자기 나라로 돌아 간다는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림 장군은 《공격은 가장 훌륭한 방비다.》라고 하면서 원쑤놈들을 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림 장군은 활 잘 쏘는 병사 600여 명을 골라서 의주로부터 만주 땅으로 가는 길 량쪽에 매복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침략자의 두목의 한 사람인 요추가 수백 명의 기병(말탄 병사)을 거느리고 의기 양양해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림 장군은 이 때라고 곧 놈들을 쳐부시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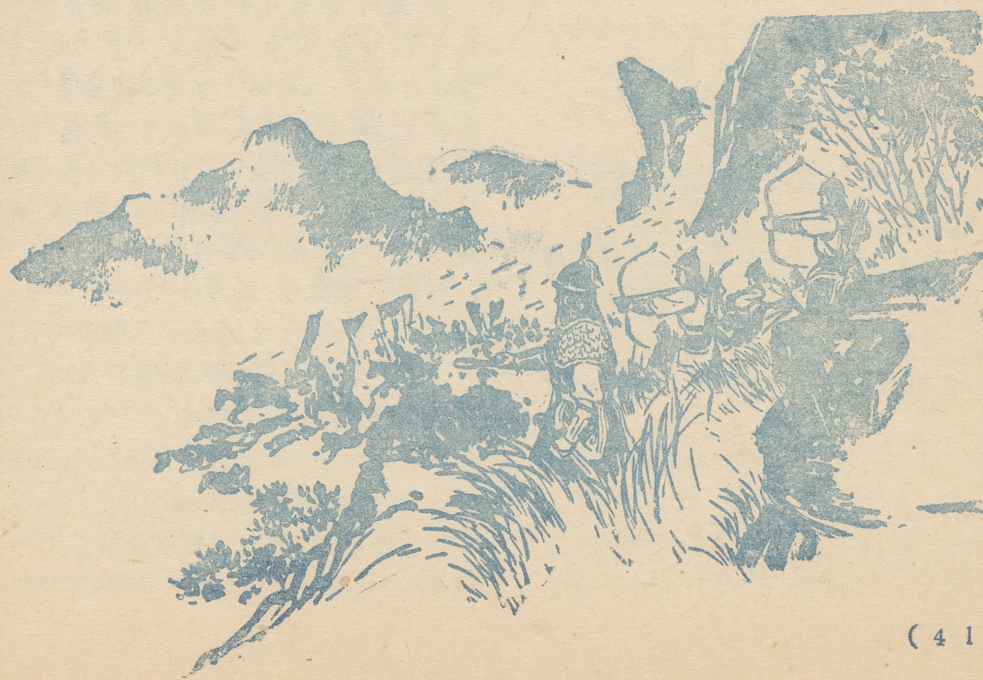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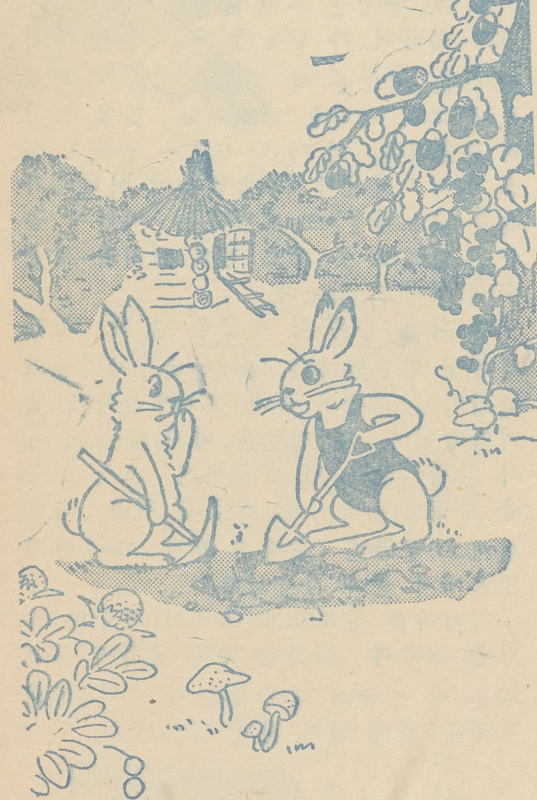
조선 병사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북소리와 함께 일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불의에 봉변을 당하는 원쑤들은 어쩔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원쑤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장군은 이렇게 원쑤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놈들이 붙들어 가던 1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빼앗아 가던 60여 마리의 말과 많은 재물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 후 장군은 그만 불행하게도 청 나라에 붙들려 가 감옥에 갇히우게 되였습니다. 청군은 림 장군을 감옥에 넣으면서 그의 머리를 깎으려고 갓을 벗기려 했습니다. 이 때 림 장군은 놈들의 손을 후려 치면서 《오랑캐놈이 어데다가 손을 대느냐?》고 호령하는 바람에 놈들은 얼씬도 못 하고 감히 머리를 깎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청 나라 왕은 림 장군을 몇 해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1646년에 자기들의 앞잡이인 조선의 봉건 통치배들에게 넘기였습니다. 림 장군을 넘겨 받은 청 나라 앞잡이들은 림 장군에게 모진 고문을 다했습니다. 림 장군은 피를 토하면서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감옥에서 돌아 갔습니다.

침략자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굴하지 않고 싸운 림 장군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화)

한 정 서

토끼네 마을은 참말로 살기 좋은 고장이랍니다.

마당'가엔 키 높은 도토리나무랑 개암나무들이 빽빽히 둘러 서 있고요, 다래랑 머루덩굴들이 우거져 가을이면 맛 있는 열매들이 주렁지어 무르익는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늘 길어 먹어야 할 우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곰 아저씨네 마을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였지요. (우리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으면!)

이것은 토끼네의 간절한 소원이였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가물이 심해서 곰네 우물도 마음 대로 길어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 토끼 호물이와 아우 토끼 깡충이는 마당'가에 우물을 파기로 작정했답니다.

깡충이는 굳은 땅을 괭이로 쾅쾅 찍었고 호물이는 삽으로 푹푹 팠어요. 한 자 만큼 파려니까 손들이 부르텄습니다. 손'바닥엔 콩알 만큼씩 한 물퉁기들이 생겨서 훅훅 불어 가며 그래도 힘있게 파 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겠어요.

한 아름이나 됨직한 굵은 나무 뿌리들이 엉기성기 나타났답니다. 마당'가에 높이 솟은 도토리나무 뿌리였지요. 호물이는 삽으로 푹푹 찍고 깡충이는 괭이로 쾅쾅 내려 찍었답니다. 그러나 나무 뿌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어요.

형 토끼 호물이는 공연한 일을 시작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부르튼 손을 호호 불며 《깡충아, 나무 뿌리를 무슨 재주 끊겠니?》 하고 곡괭이를 슬쩍 놓았어요. 하지만 아우 토끼 깡충이는 우물을 얼른 파고 싶었답니다.

우물만 있으면 토끼네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동산이 될 게고 그리고 마당'가의 시들어 가는 채마밭에도 맑고 달콤한 샘물을 함뿍 뿌려 줄 수 있을 게 아니예요. 또 곰 아저씨네 우물마저 말라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깡충이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형, 나무 뿌린 도끼로 찍으면 될 거예요. 열 번 찍어 안 되면 백 번 찍자요.》 하고 말입니다.

깡충이는 도끼를 가져다 찍고 또 찍어 끝내 나무 뿌리를 끊어 냈어요.

그런데 석 자를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고 넉 자 만큼 팠어도 물은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번엔 어쩌자고 망짝 같은 바위'돌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망짝 같은 바위'돌은 글쎄 삽으로도, 곡괭이로도, 도끼로도 까부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호물이는 《망짝 같은 바위'돌을 무슨 수로 까 내겠니? 조상 때부터 물이 안 나니 우물 없이 살았겠지. 공연한 헛수고지.》 하고 깡충이에게 두덜거렸습니다.

깡충이의 마음은 안타까왔어요. 하지만 더는 우길 수가 없었답니다. 망짝 같은 바위'돌을 까 낼만 한 힘이 없었으니까요.

때마침 낮잠에서 깨여 난 곰 아저씨가 하품을 쩝쩝 하며 걸어 왔습니다. 겨드랑이엔 큼직한 자루까지 끼고요. 아마 도토리를 주으려 가는 가 봐요.

깡충이는 곰 아저씨의 힘을 빌릴가 생각했어요. 곰 아저씨는 힘 장수니까 고까짓 바위'돌쯤이야 냉큼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깡충이는 곰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 돌을 좀 뽑아 주세요.》 하고 졸랐습니다.

곰 아저씨는 《그 돌을 뽑아 무얼하니?》 하고 우묵한 두 눈을 디굴디굴 굴리며 우물 파는 것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물을 파는 게로구나.》 하고 어림도 없다는듯이 뒤'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가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우물을 파요. 아저씨, 이 바위'돌만 좀 들어 내 줘요 네!》 하고 깡충이는 애가 타서 곰 아저씨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큰 바위'돌을 들어 낼 힘이 있니? 무슨 재주로 그 밑뿌리가 깊고 깊은 바위'돌을 뽑겠니?… 우물은 파 뭘해, 우리 집 마당'가에 수정 샘물이 있는데.》

사실 곰 아저씨는 바위'돌을 들고도 남을 힘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토끼네 마을에 우물이 생기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배 두렁을 버걱버걱 긁으며 그냥 가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저씨네 신세만 지고 살겠어요. 지금까지 길어다 먹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요.》 하고 깡충이는 정말 미안한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념려 말아, 너희들이야 물을 못 주겠니.》

《그렇지만 아저씨네 우물에도 물이 많지 못 하지 않아요.》 하고 아우 토끼 깡충이가 말하자 이 때

《아저씨, 아저씨네 우물은 마르지 않지요?》 하고 호물이가 깡충 나섰습니다.

《별 걱정 다 말아, 할 일이 없으면 우리 집 도토리나 좀 주어 주렴.》 하고 곰 아저씨는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형 토끼 호물이는 너무 좋아

《곰 아저씨, 그럼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하며 곰 아저씨의 뒤를 따라 갔어요. 호물이는 깡충이를 데리고 종일토록 곰 아저씨네 도토리를 주어 주었답니다.

이 날 저녁녘에 곰 아저씨는 토끼네

집에 물 한 지게를 길어다 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물이 그냥 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가물이 심했던지 터밭의 채마들은 쥐여 짠 걸레처럼 맥 없이 푹 늘어졌어요.

그래서 토끼네 형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물을 길어야 했답니다.

이런 때 곰 아저씨는 낮잠에서 깨여나 그 큰 눈을 디굴디굴 굴리며 도토리를 주으러 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곰 아저씨의 머리에는 좋은 수가 떠 올랐어요.

《옳지, 물이 귀한 때니 물 값으로 토끼네한테서 도토리를 받아야지, 싫다면 물을 안 주면 그만이지, 저들이 내 물 아니고서야 살 수 없지…》

욕심쟁이 곰 아저씨는 그럴듯 한 생각이라고 침을 겔겔 흘리며 좋아 했어요.

이 날도 호물이와 깡충이는 장'대에 물통을 꿰여 들고 물을 길러 곰네 우물로 갔어요. 찰랑찰랑 박우물에 차고 넘치는 샘물을 물통에 퍼 담는데 곰 아저씨는 미닫이를 드르륵 열더니

《얘들아, 너희들도 렴치가 없구나, 물도 값이 있는 법이란다.》 하는 것이였습니다.

호물이와 깡충이는 무안했어요. 그래 물 한 통을 퍼 들고 돌아 오면서 깡충이는 호물이에게 우물을 다시 파자고 했어요.

그러나 호물이는

《가물이 심하니 물이 귀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깡충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형, 물 값을 내라는 거야.》

《원 별 소릴 다한다. 가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니. 이제 비가 오면 물이야 흔해 질 걸.》 하고 게름뱅이 호물이는 늦장을 부렸어요.

하지만 깡충이는 혼자서라도 우물을 파기로 단단히 작정했답니다. 그래 너머 동산에 사는 사슴이네 대장'간에 가서 끝이 뾰족한 정날을 벼려 왔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물이와 깡충이는 물을 길러 곰 아저씨네 샘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곰 아저씨네 우물에는 뚜껑이 덮여 있고 거기엔 망짝만 한 자물'쇠가 잠겨 있었답니다. 물을 길어 가지 말라는 거죠.

호물이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아찔해서 넘어질 번 했어요. 호물이는 그제야 아우 토끼 깡충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새삼스러이 뉘우처졌습니다.

그래서 호물이는 《얘 깡충아, 이제라도 우물을 끝내자. 땅 밑에야 물이 있겠지!》 하고 망치랑 곡괭이랑 정날을

들고 먼저 나섰습니다.

× ×

호물이와 깡충이는 우물을 팝니다. 깡충이는 뾰족한 정날을 요리조리 돌려대고 호물이는 떡메만 한 망치로 내려칩니다.

하지만 바위'돌은 움쩍도 안 했어요. 도리여 정날이 모조리 부러졌지요.

련 사흘째 되는 날이였어요. 이 날도 깡충이와 호물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돌을 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손들은 부르트다 못 해 온통 피투성이가 되였답니다.

그런데 이 때 곰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요. 곰 아저씨는 우물 파는 것을 기웃기웃 보더니

《…쯧쯧, 손들이 온통 부르텄구나, 무슨 힘으로 그 바위'돌을 까내겠니… 그럴 것 없이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꾸나. 이웃 사촌이라는데…》

곰 아저씨는 달콤한 말을 섞어 가며 토끼네 형제를 얼렸습니다.

《너희가 물을 쓰면 얼마나 쓰겠니…암 그렇구 말구, 내가 물을 못 쓰는 한이 있더래도 너희야 줘야지.

그 대신 너희 동산에 많은 도토리나 매일 조금씩 보내 주렴…》 하고 제법 사정을 보아 주는 척 했답니다.

하지만 깡충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곰의 그 발'바닥보다 더 두터운 욕심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수작이였으니까요.

호물이도 아무 대꾸를 안 했습니다.

제풀에 성이 난 곰 아저씨는

《허, 은혜도 몰라 보는 놈들. 그래 너희들이 여태 누구 물을 먹고 살았느냐?…네 힘으로 우물을 파면 내 손톱에다 장을 지지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 버렸답니다.

곰 아저씨가 간 뒤 깡충이와 호물이는 서로 말 없이 얼굴들만 빤히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 밖에 남지 않았던 정날마저 부러졌고 이제는 또 바위'돌을 까낼만 한 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물 없이 살 수는 없었죠.

호물이는 차라리 아니꼽기는 하지만 곰 아저씨의 말 대로 도토리라도 주고 물과 바꿀가 하고 속 궁리도 해 보았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호물이의 머리 속에는 곰 아저씨의 우물에 굳게 잠겨 있던 망짝 같은 자물'쇠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 갔어요.

호물이는 어쨌든 우물을 꼭 파야 한다고 속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에잉, 이 놈의 바위'돌을 하늘로 닁큼 들어 올릴 힘장사가 되였으면 좋겠다.》 하고 애가 타서 말했어요.

그러자 깡충이는 그것이였다는듯이 무릎을 툭 치며

《형, 그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 말이냐?》

《형, 됐어!》

《저 굴밤나무 가지에다 칡넝쿨을 꼬아서 늘어뜨리고 그것으로 달아 올리면 될 거야…》

《글쎄 비슷한 생각이다…그런데 무슨 힘으로 달아 올린다…그렇지! 사슴이네 동무들더러 도와 달라고 할가?》

《형, 달아 올릴 수 있어요!》 깡충이는 자신 만만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호물이는 깡충이가 무슨 꿍꿍이 궁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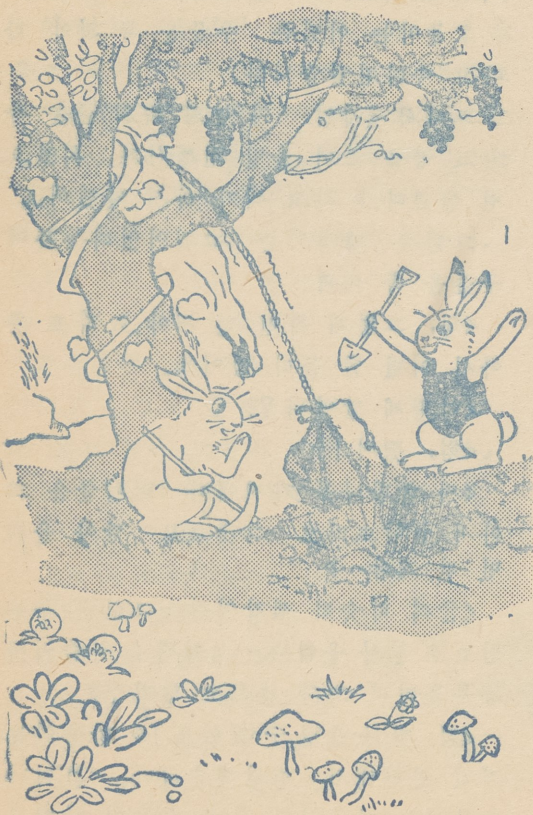
《어떻게 말이니?》

《한 끝은 이 바위'돌에 매고 다른 한 끝은 저 벼랑 우의 바위'돌에다 매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벼랑 우의 바위'돌을 지레'대로 벼랑 밑에 굴리면 그 힘으로 이 바위'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 거 무슨 요술 같은 소리야!》

《형, 된다는데도, 자 저 벼랑 우의 바위'돌이 이 돌보다 크지? 그러니까 더 무거울 게 아니야, 더 무거운 것이 밑으로 내려 가는데 가벼운 게 왜 안 들린단 말예요!》 하고 깡충이는 제법 실에다 조약돌을 달아 매서 시험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호물이도 자신심이 생겼어요.

그래 입이 터진 팔자루만 해 가지고 《그런 걸 난 또…그런데 바'줄이 끊어지지 않을가? 옳지, 열 겹, 스무 겹 꼬아서 하자.》 하고 연방 돌아쳤습니다.

호물이와 깡충이는 온 동산의 칡넝쿨을 다 걷어다 굵디 굵은 바'줄을 꼬았답니다. 그리고 굴밤나무 가지를 의지해서 바'줄의 한 끝은 바위'돌에 매고 다른 한 끝은 벼랑 우의 바위'돌에 맸어요.

《하나, 둘, 셋!》 벼랑 우의 큰 바위'돌이 굴러 떨어지자 구덩이의 바위'돌이 넝큼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떼꾼 큰 구뎅이가 생기고 그리로부터는 수정 샘물이 분수처럼 터져 올라 왔어요.

호물이와 깡충이는 《물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얼싸 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호물이는 깡충이를 으스러지게 그러안으며

《깡충아, 나도 이제부턴 제 힘을 믿고 살겠다.》 하고 힘 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쯤은 토끼들이 도토리를 걸머지고 물을 빌려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당'가에 나서서 먼 산을 건너다 보던 곰은 《물이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성이에 올라 서서 맞은편 토끼네 동산을 건너다 보니 맑은 샘물이 분수처럼 콸콸 솟구치지 않겠어요.

그래 기가 죽은 곰은 《어, 남을 얕보고 부려 먹고 살던 내 세상은 이젠 끝장이로구나!》 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세계에 이름난 과학자

《비글호》와 찰스 다윈

권 혁 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1831년 12월 27일, 영국의 한 항구에서 돛을 단 자그마한 군함 《비글호》가 세계 일주 려행을 떠났습니다.

《비글호》의 세계 일주 항해는 남미주의 해안선과 산타—크루스강 류역의 정확한 지형을 지도 우에 그려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비글호》는 불과 235 톤의 작은 군함이였지만 그가 세계 지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130 년이 지난 20 세기 오늘까지 이 자그마한 군함 《비글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그가 지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19 세기 위대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탐험대의 자연 과학자로서 이 배에 탔던 것이 《비글호》의 이름을 더욱 빛내였기 때문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러면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였기에 《비글호》의 이름을 그렇게 빛내이게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다윈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서 우러러 보겠습니까?

찰스 다윈은 1809년 2월, 영국의 자그마한 도시인 슈류스버리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여났습니다.

다윈은 어려서부터 동물과 식물, 광물 채집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식물 중에서도 곤충 채집에 특별한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그가 소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늙은 나무의 껍질을 벗기다가 이상한 딱장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딱장벌레였습니다. 어린 다윈은 표본을 만들자고 재빨리 두 마리의 딱장벌레를 잡아 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때 저쪽 구새 먹은 나무 구멍에서 또 이상한 다른 딱장벌레가 기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그 딱장벌레마저 잡을 욕심에 다른 것을 생각할 사이 없이 손에 쥐였던 딱장벌레를 입 안에 넣고 달려가 그 딱장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입에 넣은 딱장벌레는 그만 입 안에다 독이 있는 물을 내뿜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윈은 입안이 헐어서 한동안 고생을 하였답니다. 이처럼 어린 다윈은 동식물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다윈이 켐부리치에서 종교 대학에 다

닐 때였습니다. 광물, 지질 등에 유명한 헨슬이라는 학자를 알게 되였습니다. 헨슬은 다윈에게 많은 생물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헨슬을 알게 된 것은 그가 후에 위대한 생물학자로 되는 데 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1831년 다윈이 켐부리치 종교 대학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이 때 영국 정부는 남미주에 있는 자기의 식민지로 가는 해도(배'길을 그린 지도)를 만들기 위해 《비글호》라는 군함을 떠나 보내게 되였습니다.

헨슬은 다윈을 자연 과학자로서 《비글호》에 같이 태우고 갈 것을 정부에 제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 때 스물 두 살인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세계 려행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비글호》를 타고 5.년 316 일 동안의 세계 일주 려행은 다윈에게 있어서 과학 연구에서와 위대한 과학자로 되는 데 둘도 없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배를 처음으로 탄 다윈은 배'멀미로 하여 갑판 우에 쓰러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다윈은 배가 닻을 내리는 곳마다 그 곳에서 많은 동물들의 뼈를 주어 모았으며 포유류, 새들, 파충류, 량서류, 곤충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의 생활 습성을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일지에 적였습니다.

바로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5 년 남짓한 동안 세계를 일주하면서 연구하고 관찰한 자료들과 그가 얻어 온 수백 가지의 짐승들의 뼈는 후에 생물학에서 중요한 발명을 하는 데 큰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니 다윈과 《비글호》를 어떻게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836년 10월,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다윈은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생존 경쟁에 있어서의 적자 생존》, 《자연 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종의 기원》, 《인간의 기원》, 《군함 〈비글호〉에 탐승한 자연 과학자의 세계 일주 려행기》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책들을 많이 썼고 생물학에서 훌륭한 새 법칙들과 학설들을 밝혀 냈습니다.

그러면 다윈이 생물학에서 밝혀 내놓은 학설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윈이 살던 그 때까지 모든 학자들은 이 세상의 수십만 가지의 동식물들은 옛날 《하느님》이 만든 그 대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고 그 대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연구하고 얻은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비글호》

다윈은 바이—블랑크 지방에서 가져온 옛날 짐승들의 뼈를 가지고 례를 들면서 그 짐승의 뼈는 그 때 있은 짐승들의 뼈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들이 살아 오는

다윈이 세계를 일주한 길

사이에 지구의 기후, 온도, 지형 등이 변화됨에 따라 그 동물들은 새로운 기후에서 살 수 있는 몸 구조를 가진 동물로 변하며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윈은 지구 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밝힌 학설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윈은 재배 식물과 가축들도 산과 들에 있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례를 들면 오늘 우리들이 기르는 닭은 산에서 사는 닭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기르는 사이에 지금과 같은 닭이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생물학에서 다윈이 처음 내놓은 학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윈은 동물과 식물은 어떤 원인으로 하여 변화되며 변화되는 과정에 어떤 특성들이 자손들에게 전하여져 내려 가는가를 옳게 밝혔습니다. 다윈의 이 학설은 그 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물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알아 내는 데 큰 힘이 되였습니다.

1871년 다윈은 자기가 내놓은 책 《인간의 기원》에서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원숭이의 한 종류가 변화 발전하여 사람으로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큰 잘못도 범하였습니다. 다윈은 자연계에서 많은 동식물(생물체)들이 살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사회도 서로 경쟁을 하며 약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강한 사람에게 먹히우게 마련이라는 반동들의 말을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과학자인 다윈에게 있어서 큰 잘못으로 되였습니다.

다윈은 73 세의 늙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기(1882년 4월 19일 서거) 이틀 전까지도 과학 연구를 위해 실험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다윈이 내놓은 생물학의 기본 법칙들은 오늘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생물학을 연구 발전시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달 모

즐거운 여름 방학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재미 나는 일들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겨울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 방학에도 소년단 생활을 잘 조직하여 방학의 한때를 즐겁게 보냅시다.

그럼 겨울 방학간 소년단 생활을 어떻게 조직할가요.

첫째로, 소년단원의 첫째 가는 임무인 학습을 잘 하여야 합니다.

방학이라 하여 그저 놀기만 하면서 귀중한 나날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방학간에도 꾸준히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방학간 학습의 기본은 복습입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이 하루의 생활표를 잘 세우고 그에 따라 매일 2~3 시간씩 학교에서 내준 숙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숙제를 한꺼번에 해 치우려는 그릇된 일들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숙제 공부는 반드시 매일매일 일과 계획에 따라 하루도 빠짐 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 공부는 자기의 힘으로 하여야 합니다.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동무들과 의논도 하고 상급 학년이나 아버지,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풀어야 합니다.

한편 방학 동안에 뒤떨어진 과목 학습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단, 분단 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 배운 지식을 방학 동안에 쓸모 있게 다져 나가도록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반, 분단 별로 모여 앉아 배운 학과목에 대한 토론도 하고 《과학 이야기 모임》도 가지며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도 자주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분단, 반들에서는 작문 짓기, 편지 쓰기와 그림 그리기 등을 조직하며 작문 발표회, 그림 이야기 모임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작품은 《소년 신문》, 《소년단》 편집부에 보내는 일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소년 신문》, 《소년단》을 빠짐 없이 읽으며 《노을 비낀 만경봉》, 《소북하 마을 소년들》, 《소년 과학》 등을 비롯한 문학 서적들과 과학 도서들을 많이 읽고 독서 발표회도 가지며 옛말 발표회, 동화 구연회 등 재미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합시다.

춥다고 하여 해바라기나 하고 아래'목에서만 있으려는 그릇된 버릇이 없어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여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단, 분단 위원회와 반들에서는 체육, 유희 오락실과 스케트, 스키장을 잘 꾸며 놓고 누구나 다 썰매, 스케트, 스키, 팽이 돌리기, 연 띄우기 등 겨울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획에 따라 반별, 분단 별로 군사 유희, 오락 경기도 하고 스케트와 썰매, 스키 경기도 자주 조직하며 눈싸움과 양키(눈사람)때려 눕히기, 설상 행군, 연 띄우기 경기 등도 재미 있게 조직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눈이 많이 온 때를 택하여 그물과 옹노 등을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토끼 사냥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새 학기에 진행되는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모두다 합격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소년단원들은 방학 동안에도 계속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9 차 전원 회의 결정과 10대 과업을 독보도 하고 선생님들과 상급 학년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도록 하며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

을 잘 학습하고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 결의를 더 잘 실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대 과업 관철에 떨쳐 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위안해 드리는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도 자주 조직해야 합니다.

한편 방학 동안에 《꼬마 7개년 계획》 활동을 잘 하여야 합니다. 파지, 파고무, 가위'밥, 유리병 몽기,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 썰매를 가지고 협동 농장 밭에 거름을 내는 일,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등을 도우며 집과 마을을 깨끗이 꾸리는 일을 잘 도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놀이'감도 만들어 탁아소와 유치원에 선물하며 그물과 옹노, 낚시와 덫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참새, 방울새, 까마귀, 쥐잡이 등도 많이 조직합시다.

방학간에도 단, 분단 위원회와 반들에서는 자주 모여 앉아 할 일들을 의논하며 진행한 일들을 총화 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소년단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어김 없이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소년단원들은 매일 저녁 하루 생활을 총화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하루 생활의 가지가지 재미 있는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일기책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반에서는 매주 한번씩 반 생활을 총화하여 반 일지에 기록하고 분단과 단 위원회에 제기하여 《영예의 붉은 수첩》에 등록하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올 겨울 방학에도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며 새 학기를 준비 있게 맞이합시다.

스케트 타기

스케트 타는 법

처음 땅 우에서 스케트를 신고 서기와 걷기 련습을 합니다.

이 때에는 몸을 곧바로 세우며 발목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케트 날을 약간씩 앞으로 눕히면서 몸과 무릎을 약간 굽히고 걷기를 합니다.

다음 스케트를 신지 않고 땅 우에서 활주의 기본 자세를 배웁니다.

활주의 기본 자세는 처음 제자리에서 하고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면서 련습합니다.

이렇게 예비 운동을 한 다음에는 얼음 우에서 (스케트를 신고) 련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비 운동에서와 같이 스케트를 신고 서기와 걷기를 련습합니다.

다음에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몸을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스케트의 날로 조금씩 옆으로 옮겨 짚으며 걷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오른 발과 왼 발을 곧추 세워 짚고 지치기를 합니다. 또 걷다가 지치기, 지치다가 걷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 스케트를 배울 때에는 썰매 타는 동무의 량어깨를 잡고 천천히 지치기 련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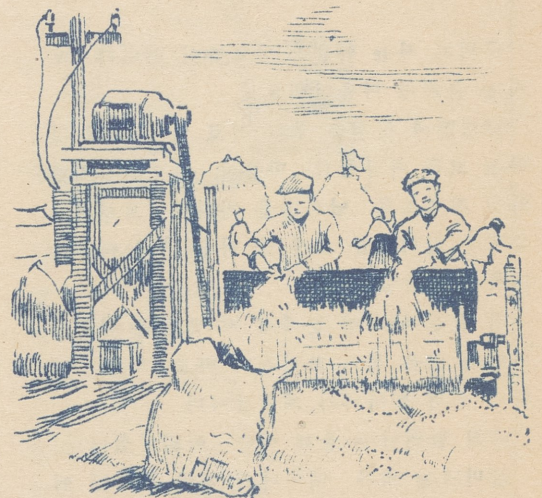
동요

벼훑이가 와릉와릉

와릉와릉 벼훑이
잘도 돌아요.
분배 받을 벼'가마니 하늘 만큼 쌓자고
아버지, 어머니들 신나서 섬겨요.

온 종일 와릉와릉
벼훑이가 돌면은
날마다 황금산이
우뚝우뚝 솟아요.

앞마을도 와릉와릉
뒤'마을도 와릉와릉
해마다 온 마을에 풍년 들어 좋다고
벼섬기는 아버지들 싱글벙글 웃으셔요.

평남도 강동군 태장 중학교 단
제1분단 백 현숙

파스칼 원리의 공식을 쉽게 외우는 법

파스칼 원리의 공식은 $\frac{P}{A} = \frac{Q}{B}$ 입니다.

(그림에서 A는 좁은 면적이고 B는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P는 작은 관의 압력이고 Q는 큰 관의 압력입니다.)

공식 $\frac{P}{A} = \frac{Q}{B}$ 를 변경시키면 $BP = AQ$로 됩니다.

우리들이 공식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 그림에서 AP, BQ를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BP = AQ$로 되며 $\frac{P}{A} = \frac{Q}{B}$ 로 유도됩니다.

(작문)

보고 싶은 할머니

우리가 사는 마을은 남녘땅이 바라다 보이는 분계선 마을이예요.

남녘땅에 친척을 두고 서로 만나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남녘땅을 바라다 보면서도 그리운 할머니를 보지 못 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집 문을 나서면 분계선 저 멀리에 대벌산이라는 높은 산이 보이는데 바로 그 산 너머에 우리 할머니가 계신답니다.

나의 할머니는 올해 예순 여덟이십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여나기 전인 1950년 어머니와 함께 후퇴하여 오다가 앓아 눕게 되여 대벌산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서 머무르게 되였답니다.

그 때 아버지는 전선에서 적들과 용감히 싸우고 계시였답니다.

나는 할머니를 보지는 못 했지만 사진을 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잘 압니다.

우리 할머니는 무척 부지런하고 무던하시답니다.불과 몇십 리 밖에 안 되는 대벌산을 바라 볼 때면 막 달려 가 할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이젠 할머니의 모습이 사진과는 퍽 달라졌을 거예요. 그 동안 고생하실래기 많이 늙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되는 그 날 나는 할머니를 내 눈으로 얼른 알아 낼 것만 같아요.

아마 할머니는 내가 손자라고 하면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처럼 어엿한 학생이 되였을 줄은 할머니는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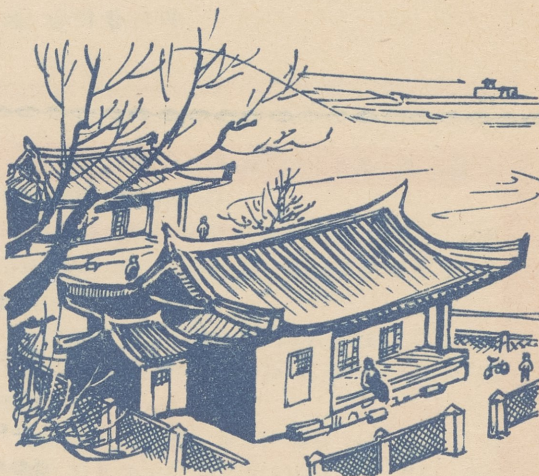
자나 깨나 할머니를 잊은 날이 없지만 옆집에 사는 영호가 명절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친척네 집에 놀러 가는 것을 보면 더욱 할머니가 그리워집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 했다고 표창장을 받아 가지고 돌아 온 날도 나는 먼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할머니가 같이 계시지 못 하는 것은 미국놈들 때문이란다. 하루 빨리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단다…》 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상장을 받아 온 날이면 조합 일에 더욱 성수가 난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옛날에는 오막살이 하나 변변히 쓰고 살지 못 했다는 우리는 지금 새로 짓은 문화주택에서 정말 남 부럽잖게 산답니다.

올해에는 또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였던 재봉기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사 온 재봉기로 온 집안 식구가 새 옷 한 벌씩을 곱게 해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녘땅에서 헐벗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시며 제일 좋은 비단 옷감을 사다가 치마 저고리를 지어 두시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옷을 입으시면 얼마나 즐겨하시겠니. 할머니는 남처럼 비단옷을 한번 입어 보았으면 한이 없겠다고 늘 말씀하시냈단다.…》 새로 지은 할머니 옷을 옷장에 고이 간직해 두시며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주'집 소작인으로서 오막살이에서 허리도 마음 대로 펴지 못 하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밤 온 집안 식구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지난 해 가을 내가 집 둘레에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으며 《이 복숭아와 사과나무를 빨리 키워 할머니를 만나는 날 잘 익은 것을 따서 드리겠어요.》 하고 말하자 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참 좋은 생각을 했다. 할머니는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시든 꼭 살아 계실 거다. 조국이 통일되는 날 네가 심어 가꾼 사과를 대접하여라.》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남녘땅에 친척을 두고 만나 보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만도 인수네와 그 밖에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남녘땅에서 미제 원수놈들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 힘 쓰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따라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모범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반을 모범 반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할머니를 빨리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평강군 천암 중학교 단 6 분단

김 봉 환

(동요)

함박눈이 퐁퐁

함박눈이 퐁퐁
송이송이 내려요.
산에도 들에도
너울너울 내려요.

분배 받은 벼'가마니
높이 쌓은 앞마당에
풍년 눈이 내려요.
첫눈이 내려요.

아빠 엄마 즐거운
일'손 따라 퐁퐁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풍년 눈이 내려요.

새해에도 이 마을에
풍년이 오라고
더미더미 높이 쌓은 비료 더미에
꽃'잎처럼 송이송이 풍년 눈이 내려요.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 중학교

3 학년 류 해신

련재 동화 만화
(제 7 회)
대담한 깡충이
조 병권 지음 원 광수 그림

앗! 저기
노루놈이…

이 놈아,
누굴 쏘려구…

요 놈
봐라!
네가
우리 참모장을
쏘겠다구…

이 놈!
게 서거라!

이 놈!

노루야!
노루야!
정신
차려라!
빨리
도망쳐야지.

승냥이놈은 우리와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놈이다.
놈들을 쳐 부시러 떠나자!

빼꾸기, 넌 앞장 서 가면서
정찰해서 부대에 알려라.

저기 승냥이 부대가
있구나, 보고해야지!

꽃동산! 꽃동산!
나는 빼꾸기!
나는 빼꾸기!
내 말이 들리는가?

네 말이 잘 들린다.
어서 말하라.
뾰족산 기슭에
승냥이 부대
나타남

빨리 뾰족산까지
앞으로!

적이 나타났다.
쏘앗!

참모장이십니까?
크 큰일 났습니다.
놈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승냥이부대
뾰족산본부

놈들이 쳐 들어 온다구?
맞받아 싸우라! 한 걸음도
물러 섰다간 없다. 일지.
독수리 부대를
곧 보내 도와 주겠다.

승냥이 부대가
위험하다
빨리 가자.

저 놈들이구나!
돌을 떨구라!

모두들
몸을 피하라!

놈들이 다 굴에 들어 갔다. 빨리 락하산을 떨구라.
234

235

앗! 락하산병이 내려 온다. 저 놈들을 쏘라!
236

237

락하산 부대마저 전멸하누나. 또 실패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가?
238

걸음아. 날 살려라!
239

빨리 들어 가고 문을 닫으라.
240

241

놈들이 사격한다. 모두 숨엇!
242

아. 어떻게 한다. 저 성벽을 넘어 들어 가는 수는 없을가? 옳지 좋은 수 있다!
243

모두 돌을 가져다 자기가 들어 갈 수 있게 파라. 돌안에 감쪽같이 들어 간 다음 포로된 독수리 놈을 시켜서 이 돌을 성안에 운반하게 만들 테다.
244

245

나는 성문 밖에서 기다리겠다. 곰이 신호총을 울리면 일제히 나와서 놈들을 공격하고 성문을 열라!
모두 들어 갔!
246

빨리 들어 가자!
247

승냥이 부대 뾰족산본부
너를 불러 낸 것은 다름이 아니다. 너희 졸도 한 개 소대를 불러서 저 돌을 들어다 성안에 던지도록 하라. 만일 이것을 거역하면 알지…
포로
248

자, 어서 부르란 말이다.
그 건 못 하겠다.
포로
249
잠간만 하 하겠 습니다.
뭣이, 못 하겠다구?
포로
250

독수리 부대지? 나 부대장이다. 깡충이한테 포로됐다가 도망쳐 오는 길이다. 지금 뾰족산에 와서 숨어 있다. 놈들이 따르고 있으니 빨리 와서 도와 달라!
251

저기 벌써 독수리 부대가 오는군. 숨어 있어야지.
포로
252

우리 만일을 생각해서 변장을 하고 숨었다가 행동을 취하자.
253

(변장하고 나타난 깡충이와 노루)

끝

《진지 빼앗기》

이 유희는 소년단원들이 겨울 한철 흥미 있게 할 수 있다.

이 유희를 많이 하는 것은 추위를 이겨 내며 용감하고 대담한 마음을 키우는 데 리롭다.

유희장은 장애물이 없이 매끈히 언 넓은 얼음판이 좋다.(두텁게 언 얼음판이여야 한다.)

유희장의 크기는 적당히 할 수 있다. 20여 명의 동무들이 함께 놀 수 있게 하자면 두 원 사이의 거리가 2 m, 원의 크기는 반경 3 m, 원 사이를 잇는 통로의 너비는 각각 1 m 정도의 너비로 하면 좋다.

그림과 같은 유희장을 얼음판 우에 표시하려면 눈으로 할 수도 있고 모래로 선을 표시할 수도 있다.

유희 방법은 《시작!》 신호가 나면 상대편의 유희자들을 완전히 선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힘쓴다. 선 밖으로 나갈 유희자는 죽은 것으로 된다.

유희자들은 마음 대로 왔다 갔다 하며 상대편을 선 밖으로 밀어 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밀어 낼 때 썰매 지팽이 또는 손으로 밀면 안 된다. 반드시 썰매로 상대편 썰매의 꽁무니를 밀어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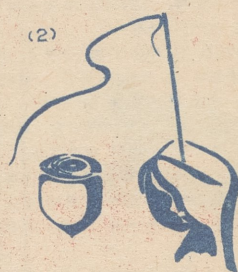
앞이나 옆에서 밀어서는 안 된다.

(알아 맞혀 보세요)

아래의 그림은 무슨 글'자로서 그 렸는지 알아 맞히시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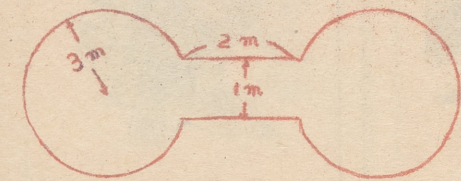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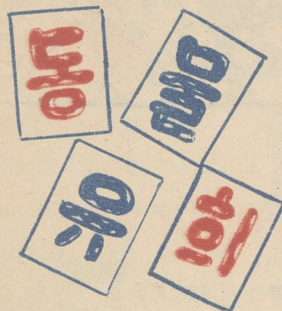
속담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심중히 생각해 보고 하라는 뜻.

△ 만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조그마한 일이 쌓이고 쌓여서 놀랠만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말.

△ 물에 빠져도 정신만 있으면 산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용감하고 침착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말

이 유희는 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는 좋은 유희다.

△ **준비할 것**—두터운 종이 (마분지)를 넓이 5cm, 길이 7cm의 크기로 된 그림 쪽지 40 매를 마련하고 거기에 다음 그림의 동물들을 그려 넣는다. 그림 쪽지는 1~20까지의 번호를 넣어 같은 것을 두 조 그린다. 그림 쪽지 색은 조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

한 조를 흰 종이에 그리면 또 한 조는 다른 색 종이에 그리는 것이 좋다.

△ **노는 방법**—먼저 동무들을 같은 수의 두 편으로 나눈다. 그리고는 제 편끼리 그림 쪽지를 나누어 가진다.

그림 쪽지는 한 사람이 한 쪽지씩 가지는 것이 좋으나 놀 사람이 적을 때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씩도 가질 수 있다.

이 놀음은 서로 그림 쪽지를 내대서 번호의 수'자가 높은 편이 빼앗긴다.

(그림 쪽지는 힘이 세고 강한 동물들의 차례로 번호가 1~20까지 되여 있으므로 번호의 수가 높을수록 낮은 수에게 지게 된다.

례를 들면 1 번한테 2 번이 지고 2 번한테 3 번이 진다.

그러나 1 번인 코끼리는 2~19 번까지의 쪽지를 다 따 먹을 수 있고 20 번인 다람쥐에게만 진다. 그리고 다람쥐는 3번~19 번까지의 동물들과는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따 먹지 못 한다. 그러나 2 번인 범한테는 진다.)

서로 그림 쪽지를 내댈 때 같은 번호의 동물끼리 만났을 때에는 그 쪽지에 있는 동물의 생활과 특성을 먼저 손으로 친 사람이 물어 본다. 그 때 제대로 대지 못하면 빼앗기고 제 대로 대면 비긴 것으로 그냥 헤여진다.

이기고 지는 것은 정한 시간 내에 어느 편이 상대편의 동물 쪽지를 많이 빼앗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그림 쪽지 그리는 방법은 우에 번호를 쓰고 그 아래에 동물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동물의 그림 밑에 동물의 특성과 생활을 적는다.

1. 코끼리

ㄱ. 열대 지방에서 산다.
ㄴ. 땅에서 사는 동물들 중 제일 크다. (4~5톤)
ㄷ. 수컷의 길다란 이'발(상아)은 공예품에 쓴다.

2. 조선범

ㄱ. 백두산 지대에서 곰, 메'돼지, 노루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ㄷ. 고기와 뼈는 약으로 쓰이고 가죽은 깔개로 쓴다.

3. 표범

ㄱ. 조선 전 지역에서 산다. 메'돼지, 노루, 사슴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고기와 뼈는 약으로 쓰이고 가죽은 깔개로 쓰인다.

4. 곰

ㄱ. 높은 산림에서 도토리, 머루, 감자, 뱀, 개구리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고기와 기름은 먹으며 열은 좋은 약으로 쓰인다.

5. 시라손이

ㄱ. 산에서 산토끼, 노루, 메'돼지 새끼 등을 잡아 먹고 산다.

6. 메'돼지

ㄱ. 칡뿌리, 나무껍질, 도토리, 감자, 뱀, 개구리, 쥐 등을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고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 데 쓴다.

7. 승냥이

ㄱ. 무리를 지어 다니며 사슴, 노루, 메'돼지, 산토끼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해로운 동물이므로 잡아 죽여야 한다.

8. 검독수리

ㄱ. 산토끼, 승냥이, 노루, 산양, 기러기, 닭, 오리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털은 장식용으로 쓴다.

9. 삵

ㄱ. 밤에 다니면서 쥐, 산토끼, 닭, 새들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으며 가죽은 털모자 만드는 데 쓴다.

10. 여우

ㄱ. 밤에 다니면서 들'쥐, 토끼, 노루새끼, 닭, 새, 물'고기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가죽은 털모자나 목돌이'감으로 쓴다.

11. 산달

ㄱ. 몸 무게는 4 kg이다. 노루, 메'돼지 새끼, 새, 쥐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가죽은 털모자 만드는 데 쓴다.

12. 사슴

ㄱ. 소나무나 도토리 나무가 많은 곳에서 나무잎, 나무순 등을 짤라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으며 뼈, 피, 새로 나온 뿔 (록용)은 약으로 쓴다.

13. 사향노루

ㄱ. 잡초와 나무잎, 나무순을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으며 수컷의 사향은 약으로 쓰며 또는 향료로 쓰인다.

14. 노루

ㄱ. 풀, 나무잎, 나무순을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으며 뿔은 장식용으로 쓴다.

15. 복작노루

ㄱ. 연한 풀, 나무순을 먹고 산다.
ㄴ. 고기는 먹는다.

16. 올빼미

ㄱ. 밤에 날아 다니면서 산토끼, 쥐 등을 잡아 먹고 산다. (1 년에 1,000 마리 이상의 쥐를 잡아 먹는다.)
ㄴ. 잘 보호해야 한다.

17. 수달

ㄱ. 물'가에서 살면서 물'고기, 개구리 등을 잡아 먹고 산다.
ㄴ. 가죽은 고급 털모자를 만드는 데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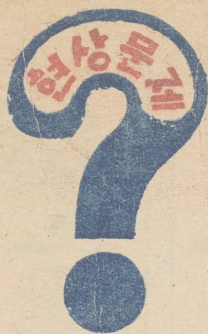
18. 족제비

ㄱ. 쥐를 잡아 먹으며 개구리나 물'고기도 먹는다. 때로는 닭이나 집토끼도 잡아 먹는다.
ㄴ. 털로는 붓을 만든다.

19. 날다라미

ㄱ. 밤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 다니면서 나무순 산과실 등을 먹고 산다.
ㄴ. 빠른 것이 특징이다.

20. 다람쥐

ㄱ. 밤, 도토리, 잣, 나무순 등을 먹고 산다.

(인민반)

올해 한 해 동안에 새로 모범 소년단이 된 학교의 이름을 들어 보시오.

(중등반)

우리 나라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새로 생긴 큰 공장, 발전소, 철도 등과 큰 집 등을 아는 대로 들어 보시오.

선인장

선인장들은 추위에 잘 견디지 못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선인장들의 뿌리는 거의 마르기 때문에 수분을 잘 빨아 올리지 못 하고 줄기에 있는 수분으로 살아 갑니다. 때문에 3~4 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또한 선인장들은 많은 해'빛을 요구하기 때문에 화분을 창'가에 놓아 하루에 적어도 8 시간 정도의 해'빛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방안의 온도는 보통 18°~20°C가 제일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10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쑥꽃, 들국화, 코스모스 등이 있다.

(중등반)

붕어, 숭어, 송어, 잉어, 뱀장어, 산천어, 련어, 백련어, 소가리, 모래무치, 가물치, 메기, 정장어, 열목어 그 밖에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10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함남도 영흥군 량탄 중학교 배 민재
개성시 사직 중학교 곽 승민
평남도 양덕군 온천 농업 학교 림 학수
평북도 천마군 삼송 중학교 우 경춘
평남도 온천군 한현 중학교 안 용, 김 관철, 박 춘실

(중등반)

평양시 대동강 구역 동문 중학교 오 창식
평양시 평천 구역 봉지 중학교 윤 창호
평남도 숙천군 숙천 중학교 계 복순
황남도 해주시 부용 중학교 리 충선
함북도 길주군 길북 중학교 리 순희
황북도 사리원시 원주 중학교 안 응춘
강원도 창도군 면천 중학교 리 정숙
남포시 남흥 중학교 리 룡현

소 년 단 제 12 호 (루계 18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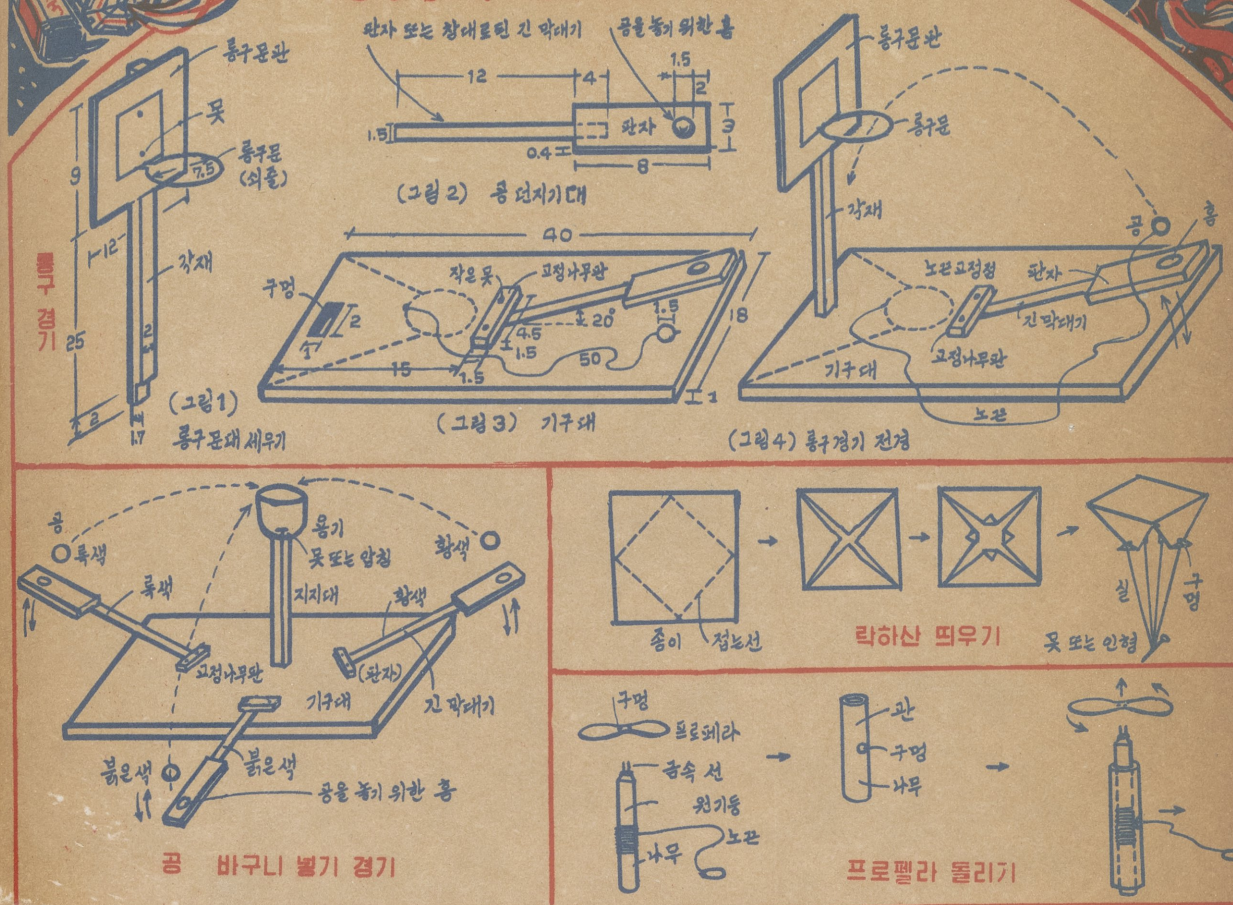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1월 21일 발행 1964년 12월 1일

ㄱ-430626 값 35 전

롱구 경기

준비품: 합판, 참대, 널빤지, 각재, 노끈, 작은 못, 쇠줄.

노는 방법: 공 던지기 대에 공을 올려 놓고 아래로 적당히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긴 막대기는 탄성력이 있으므로 제자리로 되돌아 가게 된다. 이 힘으로 공은 공중에 날아 롱구문 안에 들어 간다.

놀음은 5~6 명이 모여 앉아 순번을 정하고 한 사람이 5~10 번씩 공을 롱구대 문에 겨누어 넣는다. 제일 많이 넣은 유희자가 이긴다.

공 바구니에 넣기 경기

준비품: 수채화, 마분지(두꺼운 종이), 널빤지, 공, 양철판(통조림 통)

노는 방법: 세 편으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같은 수의 공을 가지고 순번대로 긴 막대기의 홈에 공을 넣고 적당히 아래로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긴 막대기는 탄성력이 있음으로 제자리로 되돌아 가게 된다. 이 힘으로 공을 공중에 날려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 넣는 공의 수에 따라 승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락하산 띄우기

준비품: 종이, 실, 못 또는 인형.

노는 방법: 일정한 높이에서 락하산을 일제히 놓으면 천천히 떨어진다. 누구의 락하산이 공중에서 제일 오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서 승리자가 결정 된다.

프로펠라 돌리기

준비품: 각재, 양철판(통조림 통) 또는 마분지, 작은 못

노는 방법: 원기둥에 노끈을 감고 웃부분의 금속 선에 프로펠라를 꽂고 관을 왼손으로 쥐고 오른 손으로 노끈을 힘있게 잡아 당기면 원기둥은 돌아가면서 동시에 프로펠라도 돌아간다. 그러면 프로펠라에 압력이 생기며 공중에 자동적으로 곧게 올라 간다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호)

조선화 《소년 전선 원호 돌격대》

김 기만, 리 길남 합작